

# 애들아, 마법 풍선 불어볼까?

이규희 글 김영곤 그림



통계청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애들아,  
마법공선 풀어볼까?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애들이,  
마법 풍선 불어볼까?

이규희 글 김영곤 그림



## 통계는 여러분의 친구

문방구 앞에서 한 아이가 덧셈하랴 뺄셈하랴,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네요. 이런 셈이 주먹구구지요. “초등학생들은 열에 아홉이 공부 때문에 가장 고민할거야.” 이런 말은 통계가 뭘지 모르고 하는 주먹구구 대답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단비네 통계 특공대는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통계로 정리하였네요. 와! 이 통계를 보니 단비의 친구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금방 알 수 있네요. 이런 게 통계이고, 주먹구구와 다른 것이지요. 통계 특공대, 대단하네요.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이 싫다고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이런 음식을 급식 시간에 자꾸 먹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통계를 내어야 알 수 있지요.

“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 백 살까지 사시겠네요!” 이 책의 주인공 단비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고 말했네요. 그래요. 통계청은 2020년의 평균 수명이 남성은 79.3세, 여성은 85.7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어요. 이처럼 통계는 미래의 일을 보여 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 구실도 하지요.





이 책 <얘들아, 마법풍선 불러볼까?>는 초등학생들이 통계와 친해져서 일상생활에서도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쓴 책이에요. 셋별초등학교 5학년 5반 김단비는 친구들과 함께 통계 특공대 모둠을 만들었군요. 통계 특공대가 반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통계로 알아보는 모습이 재미있군요. 초등학생들이 스스로 통계의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모아 설문지를 만들고, 그래프나 표를 만들다니, 기특하네요. 이 학생들은 세상을 폭넓게 보는 눈을 뜨겠네요.

통계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통계를 모르는 어린이들보다 더 현명하고 한결 지혜롭지요. 우리 통계청 직원들은 ‘어린이 통계캠프’를 비롯하여, 소외 계층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 나눔 통계교실’도 열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자주 이용하세요. 통계청은 초등학생들이 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도 발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많은 어린이들이 통계와 친구가 되어 더욱 지혜롭고 현명하며 합리적인 생각을 키워 나가길 바랍니다.

2012년 12월 통계청장 우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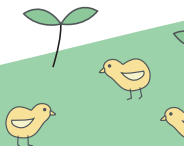
## 통계는 보물지도

“콩치야, 넌 어디에서 왔니?” 이 책에서 단비가 콩치에게 물었어요. “이 밀가루는 수입한 밀로 만든 거야.” 그걸 어떻게 아나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가 먹는 콩치나 쇠고기가 또는 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지요. “아침을 굶으면 몸에 해롭나요?” 단비네 반 통계 특공대처럼 통계를 내 보면 알 수 있지요.

조선 시대에는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는 각각 몇 척이었을까? 이런 옛날 일도 통계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몇 살까지 사실까? 아흔 살, 백 살? 통계가 있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숨은그림찾기. 무엇인지 아시지요? 통계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에게 통계는 숨은 그림 또는 숫자나 수치 또는 표나 그래프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통계는 별별 보물이 담겨 있는 보물 지도이지요. 통계에 담긴 보물을 찾으려면 ‘통계를 보는 눈’을 떠야 하지요. “누가, 왜,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따위를 보는 눈이 ‘통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통계를 보는 눈’이 뜨일 거예요.

“현 옷을 재활용하면 자원이 절약되나요?” 그럼요, 되고말고요. 이 책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재활





용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통계는 정확한 지식이지요.

“엄마, 한 달 용돈 만 원으로 올려 주세요.”라고 무조건 조르면 엄마가 “그래.” 하고 들어 주실까요? 이 책의 주인공 단비처럼 통계를 보여 드리면, 엄마가 청을 들어 주실지도 모르지요. 통계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엑스선으로 볼 수 없잖아요?

“내 친구들도 나처럼 무언가 고민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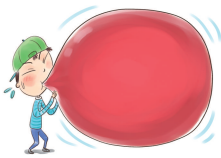
“내 친구들도 이성 친구와 가까이 지내기 바라는가?”

이런 것들을 해리 포터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지요. 그러나 친구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통계이어요. 통계가 있으면 여러분도 친구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어요. 통계 특공대처럼,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 친구들의 행동이나 마음을 통계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의 마음이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을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도 생길 거예요.

마술사가 빈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꺼낸 것을 보셨나요? 통계는 마술이 아니라 과학이어요. 그러나 통계를 볼 줄 알면 마술사처럼 통계에 담긴 보물들을 꺼낼 수 있지요. 여러분도 통계에 담긴 보물들을 꺼내 보세요. 성적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동화 작가 이규희





나도 해외여행 간다 • 11

너랑 안 놀아 • 23

내 꿈은 아이돌 가수 • 36

엄마 아빠 백 살까지 사셔야지요 • 46

내 옷 어때? • 62

동생을 입양했다고? • 72

내 스마트폰이 어디로 갔지? • 89





할머니랑 사는 형우 • 102

나도 남자 친구가 있으면 • 120

책 읽기 싫어 • 132

콩치야, 넌 어디서 왔니 • 144

아침밥 먹기 싫어 • 157

내 고민은 말이야 ... • 168

기부천사, 호떡 장수 아저씨 • 178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 195







## 나도 해외여행 간다

한낮이 되니 날씨가 더워 땀이 났다.

“아휴, 더워. 수영장에 가면 좋겠는데.”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던 단비는 나무 그늘 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그때 아파트 7단지 앞에 같은 반 친구 한솔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반바지 차림으로 배가 불룩 나온 가방을 멘 걸 보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모양이었다.

“한솔아, 어디 가니?”

“응, 나 오늘 하와이 간다! 아빠 휴가에 맞춰 온 식구가 비행기 타고 놀러갈 거야. 육박칠일 동안 오하우, 그리고 마우이, 빅 아일랜드까지 돌아보고 올 거야.”



“우와, 좋겠다!”

단비는 부러워서 소리를 질렀다.

단비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본 풍경이 떠올랐다. 와이키키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며, 마우이 섬의 화산 공원이며, 이국적인 꽃과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하와이. 여름방학을 시작하는 날 여러 아이들이 들뜬 목소리로 미국이네, 유럽이네, 필리핀이네, 태국이네 하면서 휴가를 간다고 자랑했다.

‘치! 나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 봤으면!’



집으로 오는 내내 단비는 입이 쑥 나왔다. 엄마 아빠는 해외여행은커녕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에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단비 아빠는 아파트 상가 안에서 ‘즐거운 빵집’을 운영하느라 늘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가게를 비울 수가 없구나. 손님들이 이 아빠가 만든 빵을 좋아하거든.”

단비 아빠는 자랑 반 하소연 반으로 단비에게 말했다. 단비 아빠는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해서 빵 만드는 학교를 나와 제빵 명장이 되었고, 늘 맛있는 빵 만들 궁리만 하였다.

“호호, 엄마가 만드는 커피 맛은 또 어땡고! 어찌나 커피가 맛있는지 손님들이 나만 찾는다니까!”

바리스타인 엄마도 질세라 으스댔다. 서양 사람들은 커피 명장을 바리스타라고 한다. 그야말로 천생연분, 단비의 엄마 아빠는 환상적인 궁합이었다. 단비가 보기에 엄마 아빠는 자신의 일에만 푹 빠져 해외여행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날 밤, 단비는 엄마 아빠를 보며 볼멘소리를 하였다.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이번 여름 방학에 해외여행을 가는 아이들이 삼분의 일이나 된다고요. 은





지는 이모가 사는 뉴욕에 가고, 서영이는 엄마 아빠랑 홍콩에 간대요. 방학을 이용해서 어학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머, 단비야, 무슨 소리니? 요즘 거꾸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많다더라. 명동이나 강남, 이태원에 가 보면 일본인, 중국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대. 그만큼 우리나라가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이지.”

엄마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단비야, 해외여행도 좋지만 우리나라를 먼저 둘러보는 게 더



중요하다. 가게 쉬는 날 엄마 아빠랑 시원한 계곡에 가서 놀다 오자. 응?”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치! 저는 우리나라 말고 해외여행 가고 싶다니까요. 비행기 타고 파리나 런던, 로마 같은 데 가서 에펠탑도 보고, 윈저성에도 가 보고, 개선문이랑 로마 유적지도 보고 싶어요. 나도 유정이 처럼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물으시면 척척 대답하고 싶어요.”

단비는 여행기를 많이 읽은 덕분에 가보고 싶은 지명이 술술 읊었다.

“아휴! 네가 커서 가고 싶은 데 맘껏 가렴. 엄마 아빠는 가게 때문에 바빠서 꼼짝할 수 없다.”

엄마는 꿈도 꾸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 간 단비는 오랜만에 이슬이를 보았다.

“그동안 왜 안 왔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응, 엄마 아빠랑 중국 여행 다녀왔어. 상해에서는 동방명주에서 본 풍경이 아주 멋졌어. 참,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애국지사





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역사적인 장소인 상해 임시정부  
에도 가봤어. 북경의 만리장성과 천안문, 그리고 백두산 천지  
에도 가 봤어. 단비야! 중국은 정말 넓고, 유적도 얼마나 많은  
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할 거야. 난 천지  
가 얼마나 물이 맑고 넓은지 깜짝 놀랐다니까. 직접 가 보지 않  
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고 아름다웠어.”

이슬이는 눈을 반짝이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도 가 봤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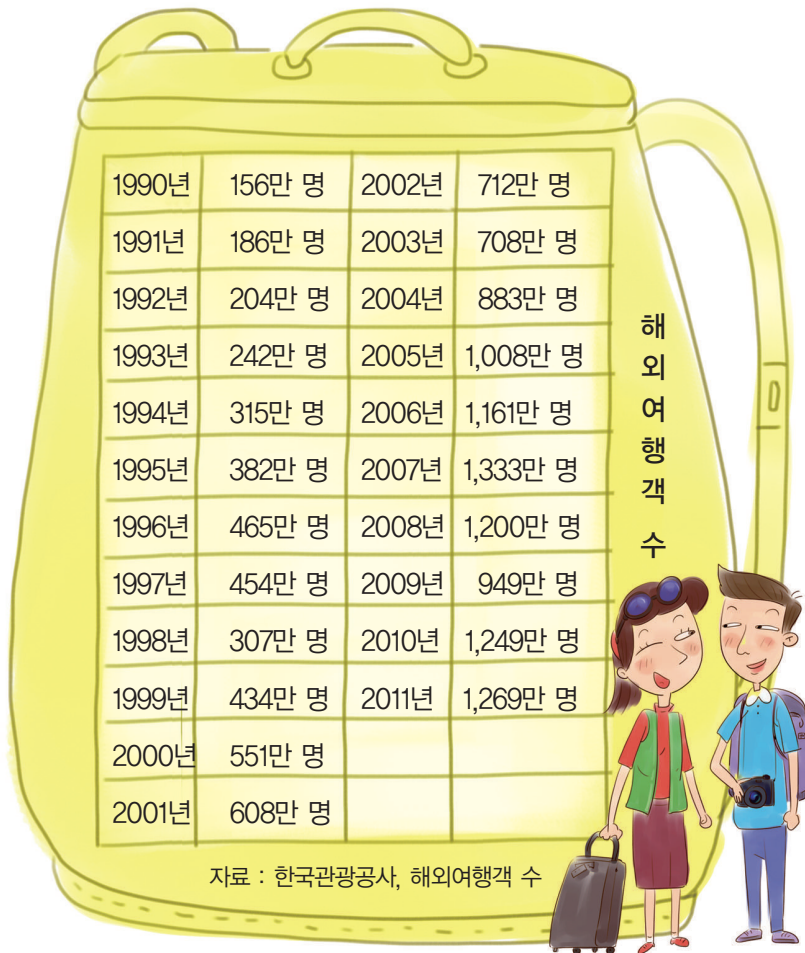
단비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방학 때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이슬이가 부럽기만 하였다.

단비는 피아노 레슨을 받는 동안 내내 해외여행 갈 궁리만 했다.

‘그래, 좋아! 나도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갈 테야. 그러려면 엄마 아빠를 꿈쩍 못하게 해야 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던 단비의 눈에 확 띄는 기사가 있었다.



## 백문이불여일견 百聞而不如一見

백 번을 들어도 알기 어렵지만  
실제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얍! 바로 이거다. 이거야!”



단비는 머릿속이 환해지자 입이 벅긋 벌어졌다. 엄마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 때 커피, 크림, 설탕 등의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아빠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버터, 설탕 등의 양을 정확하게 저울에 다셨다. 엄마도 아빠도 늘 정확한 수치를 좋아하셨다.

단비는, 숨겨 둔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장수처럼, 들뜬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 무섭게 신문에서 스크랩한 기사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일 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간대요.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

리도 해외여행 가요. 네?”

단비는 한자 성어까지 들먹이며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음, 어디 보자. 이렇게 해마다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  
다니. 이젠 사람들이 전 세계를 자기네 집 문지방 넘듯 넘나  
드는구나.”

“아휴,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지.”

엄마 아빠는 단비가 내민 기사를 읽어보며 한마디씩 하였다. 아  
빠는 무언가를 곰곰 생각하는지 눈을 끔벅끔벅하며 한참 단비를  
보았다.

“단비야, 사실 아빠도 젊었을  
때부터 늘 유럽에 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다. 유럽 여  
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맛있  
는 빵을 먹어보고 새로운 아  
이디어도 얻고, 남이 쓰지  
않는 독특한 재료도 찾아보  
고 싶었어.”





“어머, 여보. 그건 나도 그랬어. 로마나 파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곳 커피 명장한테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비법도 배우고 싶었어.”

엄마도 들뜬 얼굴로 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한다는 말에 단비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는 빵 만드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엄마는 커피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그럼, 우리도 가요. 네! 휴가 갑니다라고 가게 문에 써 붙이고 가면 되잖아요.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단비는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날 듯이 서둘렀다.

“그렇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선 우리 세 식구가 유럽 여행을 가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해. 경비도 마련해야 하고, 가게를 맡아 줄 사람도 구해야 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네가 5학년이니까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인 6학년 겨울 방학

때쯤 떠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네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요?”

단비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6학년 겨울 방학이 되려면 500일도 더 남았으니 말이다.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그때까지 우리 모두 알뜰살뜰 아껴 여행 경비도 마련하고, 여행지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그래,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할래요. 용돈도



모으고!”

“호호, 김단비, 약속한 건 지켜야 한다는 거 알지?”

“네, 알았어요!”

단비는 500일도 더 남았지만 마음은 벌써 유럽에 가 있었다.

‘아빠 말씀대로 6학년 겨울 방학 때까지 유럽 여러 나라를 공부  
를 해야지. 선생님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하셨어.’

그날 이후 단비는 커다란 지구본을 사 놓고 날마다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을 손으로 짚어 가며 지명을 익혔다. 6  
학년 겨울 방학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꿈이 있기에 얼마든지 기  
다릴 수 있었다.



## 너랑 안 놀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이었다. 한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  
쭈뼛쭈뼛 교실 안으로 들어섰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새카  
만 게 어딘가 좀 다른 아이들과 달라 보였다.

“누구지?”

“전학 온 아이인가 봐.”

“뭔가 좀 이상하다.”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우리 학교로 전학 온 최동수란다. 동수는 충남 홍성에  
서 살다가 이번에 서울로 전학을 왔으니 너희들이 잘 돌봐주기  
바란다. 동수야, 인사하렴.”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동수를 바라보았다.

“마, 만나서 반가워. 잘 부, 부탁한다.”

동수는 떠듬떠듬 인사를 하였다. 그때 명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재는 외국 아이예요? 어쩐지 이상해요. 얼굴도 까맣고 말도 더듬고요.”

“너희들이 궁금해 할까 봐 이야기해 주마. 동수 어머니는 원래 필리핀 분이시다. 서울엔 처음이니까 동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너희가 여러 모로 잘 도와줘야 해. 음, 동수 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옹지, 저기 김단비 옆에 앉으면 되겠구나. 단비야, 동수 좀 부탁한다. 알림장 쓰는 것도 좀 도와주고. 특별교실 갈 때도 같이 좀 가 주고. 알았지?”

“네?”

단비는 벌에 쏘인 듯 소스라쳤다. 책상 한 칸을 두 줄로 나란히 붙여서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까지 있는 교실에서 하필이면 전학 온 아이를 자기 옆에 앉힐 줄이야.

‘치, 누가 아는 체할 줄 알고! 아휴, 개학 첫날부터 이게 뭐람!’

단비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한눈에 척 봐도 촌스럽게 생긴



아이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함께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단비는 최동수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 아이들은 단비를 보며 슬슬 놀려 댔다.

“헤헤, 김단비는 좋겠다. 이국적인 남자 친구가 생겨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자 친구인데 어찌나.”

“뭐라고, 누가 내 남자 친구라고 그래? 이게 정말!”

단비는 아이들을 쏘아보았다. 아이들이 그럴수록 옆에 앉은 동수가 꼴도 보기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반 아이들끼리 햄버거 팀, 피자 팀으로 나누어 피구 연습을 하였다. 머잖아 다가올 교내 운동회에서 5학년들이 반 대항 피구 시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햄버거 팀인 단비는 공격수들이 던진 공을 요리조리 피하였다. 운동이라면 질색인 탓에 날아오는 공만 봐도 무서웠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이들은 단비와 같은 편인 동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동수는 공을 피하려 몸을 아래위로 굽히기도 하고, 때로는 땅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자 약이 오른 피자 팀의 진우가 동수의 얼굴에 공을 세게 던졌다.

“으윽!”

동수는 공을 맞고 자빠졌다. 피자 팀 아이들은 ‘와아!’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다. 마치 토끼몰이를 하던 사냥꾼들이 토끼를 잡은 것처럼. 그 순간 단비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다.

“야, 최진우! 공을 얼굴에 던지면 반칙인 거 몰라?”



“우우, 김단비. 콩자반 편을 드는 걸 보니 벌써 둘이서 절친이라도 된 모양이네?”

“뭐라고? 이게 정말!”

단비는 주먹을 꼭 쥐고 치켜들었다.

단비는 요 며칠 사이 아이들이 동수의 얼굴이 까무잡잡하다고 콩자반이라며 놀려 대는 걸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또 동수가 지나가면 유치하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뼉을 치며 웃어 대고, 어떤 아이는 “너의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니까 너도 필리핀 말로 해 봐”라며 어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공으로 동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히었다.

‘그래, 마음에 드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놀리거나 왕따를 시키는 건 비겁한 일이야.’

단비는 진우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최진우, 네가 잘못했어. 피구 규칙에 얼굴을 맞히면 퇴장이라는 거 몰라?”

반장 수정이가 나서서 따끔하게 말했다.

단비가 흘끗 쳐다보니 동수의 오른 쪽 뺨이 빨갛다. 동수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내가 가서 델래줘야 하나? 그러면 아이들이 또 놀러댈 텐데.’  
단비는 동수가 가여웠지만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날 세 식구가 저녁을 먹을 때였다. 단비는 낮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엄마, 동수가 너무 불쌍해요. 여기서 괜히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필리핀에 가서 살면 좋을 텐데요.”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겠지. 게다가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 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다문화 가정을 많이 도와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는데. 동수라는 아이도 적응을 잘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텐데.”

엄마도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신문에서 보았는데 다문화 가정 초중고생의 40퍼센트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다더라. 초 중 고교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와 기초 학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예비 학교도 있고, 서

울 다솜 학교, 지구촌 학교 등 대안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겠지. 다문화 가정 아이를 차별하고 놀리는 일은 없어야겠지.”

아빠는 신문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였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단비는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 내가 나빴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 옆자리에 앉은 동수를 단 한 번도 따듯하고 정겹게 대해 준 적이 없었어.’

단비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동수를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하였다.

다음 날, 단비는 책상 서랍에서 새 크레파스 한 상자를 꺼내어

###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

2012년, 다문화 가정의

- 초중고생은 약 5만 명이다.
- 초등학생은 약 3만 6천 명이다.
- 다문화 가정 초중고생의 40퍼센트 정도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

2014년에는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생은 약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신문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다. 지난 번 미술 시간에 동수는 거의 다 닳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다 되도록 동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어,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나?’

단비는 자꾸 교실 문 쪽을 바라보았다. 동수의 얼굴은 조회 시간이 다 되도록 보이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 다녀오자마자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선생님은 지시봉으로 교탁을 탕탕 두드렸다.



“난 우리 5학년 오반에 실망했다. 방금 동수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동수가 아무리 달래도 학교에 가지 싫다며 울고 있다더라.”

동수를 놀려 댔던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였다. 동수 이야기가 나오자 단비도 얼굴이 빨개졌다. 단비는 제



발이 저렸다.

“요즈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설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말 게다. 너희가 스스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렴. 내가 동수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동수가 학교에 나오면 모두 친절하게 대해 주기 바란다.”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나 때문이야. 옆자리에 앉은 내가 좀 더 잘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단비는 갑자기 동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동수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단비는 걱정이 되어 반장 수정이한테 다가갔다.

“수정아, 우리 동수네 집에 가보면 어떨까? 그럼 마음이 풀어져서 학교에 올지도 모르잖아.”

“그렇잖아도 선생님께 의논드리려던 참이었어.”

수정이 걱정스레 말했다.

“나도 갈래. 그날 내가 동수 얼굴에 공을 던져서 그런 거니까.”



진우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학교 공부가 끝나고 반장 수정이, 부반장 세철이, 단비, 유나, 진우 다섯 명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들고 동수네 집을 찾아갔다. 동수는 학교에서 30분쯤 떨어진 연립주택 지하에 살고 있었다.

반장 수정이가 문을 탕탕 두드렸다.

“어, 어!!”

문을 뺨뚫 열고 얼굴을 내민 동수가 눈이 휘둥그레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동수는 진우를 보자 몸을 움찔하였다.

“동수야, 미안해. 그날 내가 잘못했어.”

진우는 기어드는 목소리로 사과하였다. 동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괘, 괜찮아. 드, 들어와.”

동수는 뺨뚨히 열린 문을 활짝 열어 주었다.

비록 햇빛이 들지 않았지만 집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방 안에는 커다란 성모상과 십자가가 있고, 창문에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고, 창틀에 빨간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집 안이 웬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단비는 성모상을 들어서 살폈다.

“응, 피,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가, 가톨릭 신자들이야. 나도 어, 엄마를 따라서 성당에 다녀.”



동수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였다.

“참, 으 음료수 줄게.”

동수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어 아이들에게 따라 주었다. 아이들은 주스를 죽 마셨다.

단비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았다. 동수가 엄마 아빠랑 찍은 가족사진이었다.

“너희 엄마 정말 젊고 예쁘시다! 애들아, 그렇지?”

“그래, 정말 예쁘시다!”

아이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너도나도 맞장구를 쳤다.

“우, 우리 엄마 대, 대학교에서 미, 미술을 공부했대. 한국에 와서 돈 벌어서 피, 필리핀에 있는 외할머니한테 보내려고 한국에 왔대. 그, 그러다가 우, 우리 아빠랑 결혼했는데, 아, 아빠가 하던 농장이 태풍 때문에 다 망가지는 바람에 서, 서울에 온 거야. 우리 엄마는 지, 지금 공장에 나가서 일해.”

동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정이, 세철이, 단비, 유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단비는 그제야 모든 걸 알 듯했다. 동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왜 서울에 오셨는지. 그동안 무시한 게 미안하였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안했어. 이제 내일부터 학교에 나올 거지?”

“사, 사실은 아이들이 무, 무섭고 싫었어. 하,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와 줘서 너무 좋아.”

동수는 멧쩍게 웃으며 뒤통수를 긁었다.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단비의 마음에도 오랜만에 해님이 반짝 들었다.

아이들이 동수를 만나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비는 영어 회화반에 들어오신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 어! 동수 엄마이신데?’

“호호! 애들아, 안녕! 내 이름은 아니 타란다. 잘 부탁한다.”

‘호호, 동수가 이제 어깨 좀 펴고 다니겠네.’

단비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분이 좋았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원래 국적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원래 국적



자료 : 통계청

## 내 꿈은 아이돌 가수



“헤리야, 왜 그렇게 혼자 앉아 있니?”

단비는 놀이터 의자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헤리를 보며 놀라 물었다. 4학년 때부터 같은 반인 헤리는 어찌나 노래도 잘하고 재치가 있는지. 소풍이나 현장 학습을 갈 때면 재미난 춤과 노래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곤 하였다.

“단비야, 나 가출하고 싶어. 엄마 아빠가 미워!”

늘 생글생글 잘 웃어서 아이들이 ‘생글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명랑한 헤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뭐? 너처럼 행복한 아이가 집을 나가고 싶다니? 제 정신이니?”

헤리 아빠는 대학 교수 엄마는 판사이다. 단비는 그런 헤리가 늘 부러웠다. 헤리 엄마 아빠는 가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도 나왔다. 그런 부모를 둔 헤리가 뭐가 부족해서 집을 나온단 말인가. 헤리의 생일 파티 때 가 보니 거실이며 서재, 복도, 방마다 그야말로 온 집 안이 도서관처럼 책으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넌 모를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밖에 몰라. 컴퓨터 게임을 해도 공부해라, 드라마를 봐도 공부해라, 만날 공부 타령이지. 그러니 공부 못하는 나를 늘 외계인 취급한다니까. 내 꿈이 아이돌 가수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는 펄펄 뛰며 안 된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되거나 연구소에 들어가라면서.”

헤리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단비는 헤리의 맘을 알 듯 했다. 날마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헤리에게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라는 건 무리일 테니까.

“그렇다고 집을 나오겠다는 건 너무 심하지.”

단비는 언니처럼 타일렀다. 그러자 헤리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단비야, 사실은 나 며칠 전에 엠 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 연습



생을 뽑는 오디션에 나갔어.”

M 기획사는 단비도 들어 본 적이 있는 기획사였다. 요즘 가장 뜨는 인기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곳이었다.

“그 유명한 엠 기획사?”

“응, 그 엠 기획사. 그런데 어제 내가 뽑혔다고 연락이 왔어. 연습생으로 뽑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가수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일단 연습생이 되면 나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진짜 가수의 길로 들어서는 거라고.”

“우와, 정말?”

단비는 저절로 입이 떡 벌어졌다. 그 기획사의 연습생이 되었다면 헤리의 춤과 노래는 이미 가수가 될 만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조심스레 이야기했더니 단칼에 안 된다고 하셨어. 이제 겨우 열두 살인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걸어가려 하느냐, 그럴 바엔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만날 좋은 대학 타령을



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지? 정말 싫어! 이걸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행운인데!”

헤리는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하긴 헤리가 그럴 만도 했다. 그 기획사 연습생이 되려고 몇 년씩 연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헤리는 선생님이 낸 수학 문제를 풀 생각도 않고 연필만 뱅글뱅글 돌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호호, 명랑 소녀 이헤리가 무슨 일일까?”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묻자 헤리는 갑자기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는 으흐흐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갑자기



폭포수처럼 터져 버린 듯.

“이혜리, 무슨 일이니? 응?”

선생님뿐 아니라 반 아이들도 당황한 얼굴로 혜리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혜리가 속상한 일이 있대요. 엠 기획사 연습생으로 뽑혔는데 엄마 아빠가 교수나 의사, 판사가 되길 바라며 절대 허락을 안 해 주신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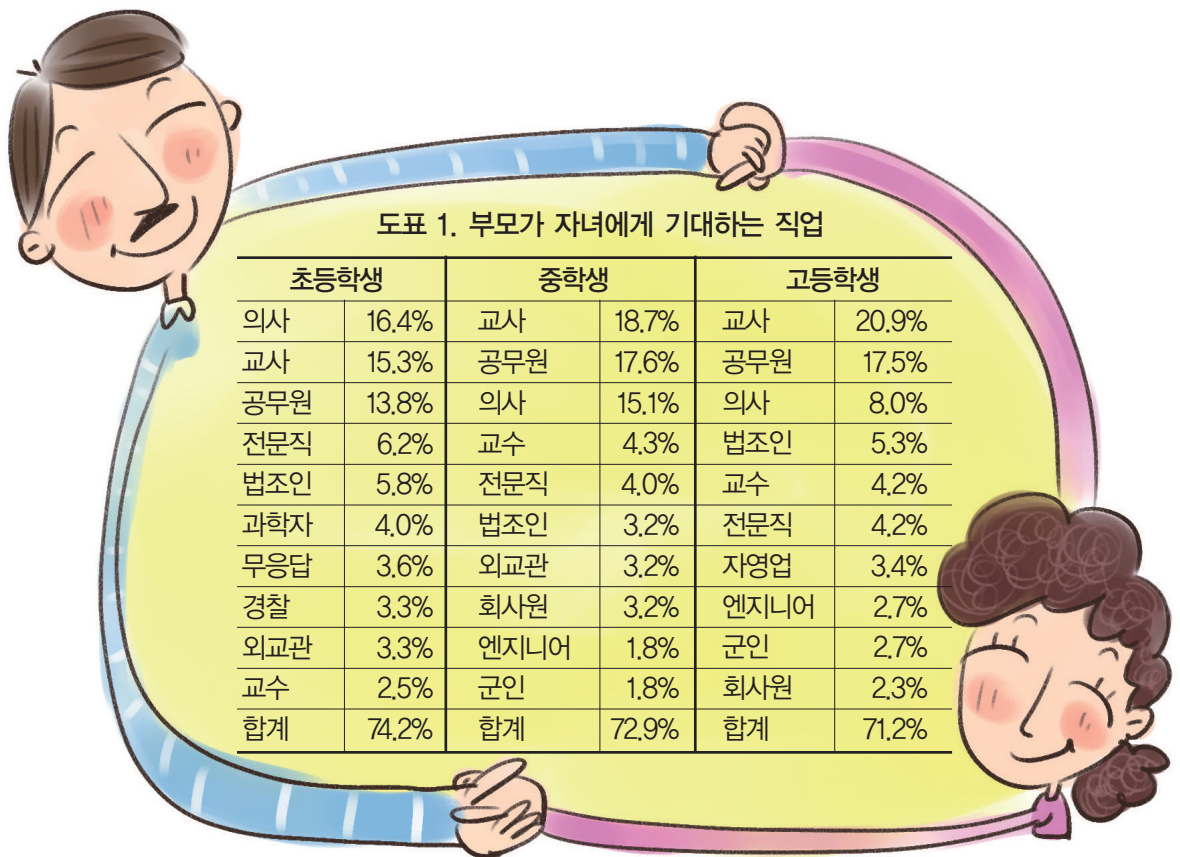
단비가 대신 설명하였다.

“그랬구나. 혜리야, 울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자. 엄마 아빠를 설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혜리의 등을 토닥토닥하였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 다음 아이들에게 자료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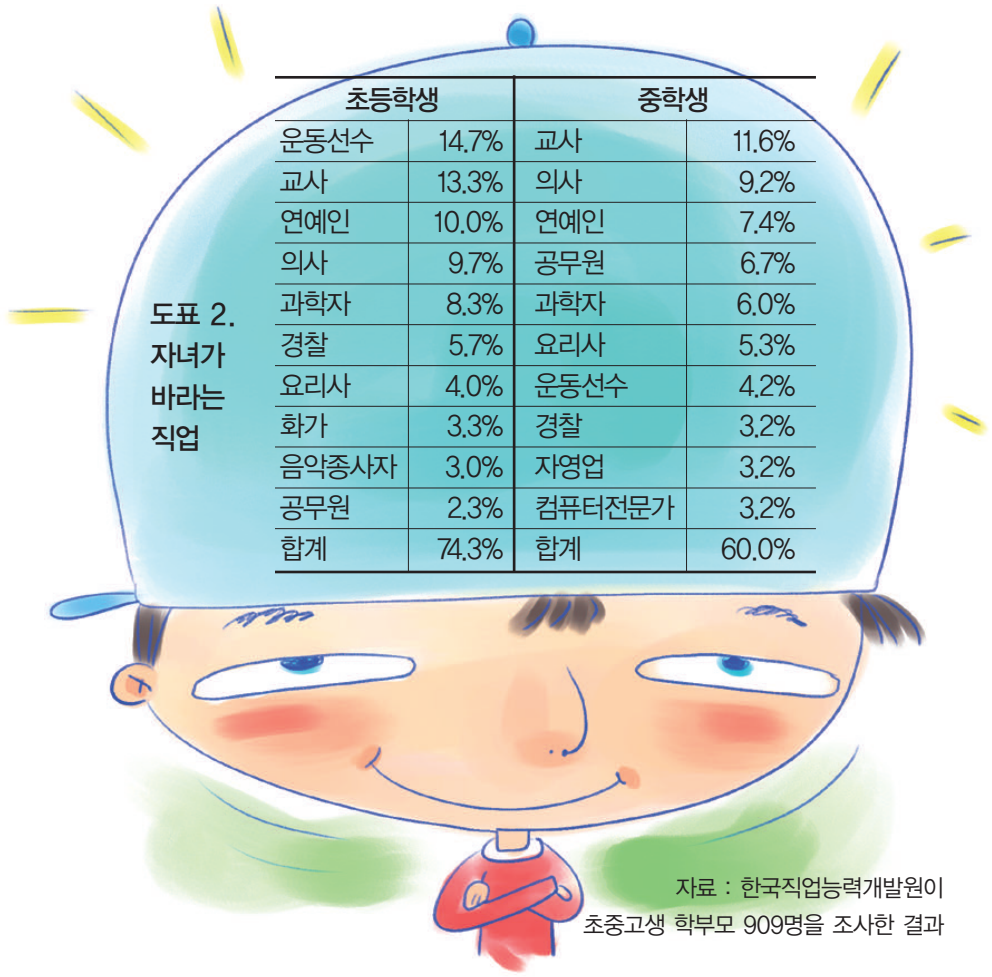
“얘들아, 이걸 보렴. 여기 나온 통계를 보면 요즘 점점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이랑, 너희가 바라는 직업이 다른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건 바로 부모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 혜리의 생각과 엄마 아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이 그림과 표를 보면 요즈음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면 나라마다 경제적 수준과 사회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각 나라의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초·중·고생 학부모 909명을 조사한 결과





선생님은 하얀 지시봉으로 <도표 3>을 짚었다.

“어쩐, 내 생각이 통계표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

“정말 내 생각과 똑같아!”

아이들은 저마다 신이 나서 시끌시끌 좋아했다.

“어떠냐?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거나 어림짐작으로



도표 3. 초등학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연예인	1위	20.5%	1310명
전문직	2위	20.1%	1283명
교사	3위	14.8%	949명
공무원	4위	12.9%	823명
예술가	5위	11.4%	727명
스포츠선수	6위	9.1%	581명
기타		11.2%	715명

자료 : 에듀모아

우기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 의견을 받아 주겠니? 통계는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알아보기 좋게 설명하는 방법이다. 요즈음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통계로 알아볼 수 있지.”

“아아! 선생님, 그냥 통계를 숫자나 그래프로 나타낸 것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운 걸 깨닫게 된 아이들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혹시 통계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통계청의 ‘어린이 통계 동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렴. 그곳에는 통계란 무엇인지, 통계표와 도표는 어떻게 만드는지, 통계가 왜 중요하며, 통계 속의 재미난 세상 이야기 같은 글들이 들어 있다.”

선생님은 칠판에 통계청 사이트 주소를 적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혜리를 보며 넌지시 말했다.

“혜리야, 네가 정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께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여 드리면서 다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 보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뚜렷한 증거를 내세우면 마음이 달라지실

지도 모르잖니?”

“이혜리, 파이팅!”

“이 다음에 아이돌 가수가 되면 꼭 공연을 보러 갈게.”

반 친구들은 혜리를 보며 큰 소리로 응원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혜리가 경중경중 뛰어 들어오더니 교실이 떠나갈 듯 크게 소리쳤다.



“얘들아! 나, 드디어 엠 기획사에 들어갔다! 연습생이 되어 다른 아이들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는 거야. 그뿐 아니라 발성이며 영어랑 일어도 배우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가수가 되는 공부를 한대.”

“혜리야, 엄마 아빠한테 허락 받았어?”

아이들이 놀라 물었다.

“응,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 관한 통계를 보여 드렸더니, 그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세상이 많이 변했지. 이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하면서 승낙해 주었어. 엄마 아빠가 직접 기획사 사장님을 만나서 의논도 하고.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던 통계가 나를 구해 줄 줄이야!”

다시 예전의 명랑 소녀로 돌아온 혜리는 신바람이 나서 외쳤다.

“우와! 이혜리! 네가 유명해지면 사인해 주라, 응?”

경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혜리야, 정말 축하해. 열심히 해서 부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길 바란다.”

단비는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선 혜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 엄마 아빠 백 살까지 사셔야지요

가을이 깊어졌다. 아파트 단지 안에 우뚝 선 나무들도 울긋불긋 고운 단풍으로 옷으로 갈아입었다. 단비는 모처럼 친구들이랑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무심코 공원 한 편에 있는 노인정을 지나던 단비는 깜짝 놀랐다.

‘우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렇게 많아?’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시거나 화투놀이를 하시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정에만 계신 게 아니라 공원 의자 여기저기에도 힘없이 앉아 계



셨다. 모두들 눈에 힘이 없어 보였고 어딘가 초라하게 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단비와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 걸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렇게 늙으면 어떡하지?’

단비는 와락 걱정이 앞섰다. 외갓집에 갈 때면 요즈음 부쩍 기력이 없어 보이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보은에 혼자 남은 친할머니도 걱정이 되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자전거를 타던 단비는 저녁 해가 서쪽으로 모습을 감추려고 할 무렵에 집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뜻밖에 보은 할머니가 와 계신 게 아닌가.

“할머니!”

단비는 반갑게 외치며 할머니 품에 와락 안겼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이제 제법 처녀티가 나는구나. 시집가도 되겠는 걸.”

할머니는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가 올해도 농사지으신 걸 잔뜩 싸들고 오셨단다. 그냥 택배로 부쳐도



될 걸. 이렇게 일부러 무겁게 들고 오셨구나.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무공해 유기농을 먹고 산다니까요.”

엄마는 할머니가 가져온 참깨,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 배추 따위를 챙기며 입이 함지박만 하게 벌어졌다.

“할머니,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 게요.”

단비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단비가 그 사이 손이 제법 여물었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할머니는 기뻐하셨다.

그때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치매에 걸린 친어머니를 시골 외딴 집에 버리고 간 비정한 아들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아들은 노모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 버리고 돌아갔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쫓쫓, 몹쓸 사람들! 그래,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를 내다 버렸다니! 그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원!”



할머니는 역정을 내었다.

“그저 나이가 들면 빨리 죽어야 해. 저렇게 푸대접을 받을 바엔  
살아서 뭐해. 쫓쫓!”

할머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어요. 이다음에 제가 시집가서 아들  
딸 낳는 것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 백 살까지  
사셔야 해요.”

단비는 펄쩍 뛰며 쫓알댔다.

“그렇게나 오래? 애고, 싫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  
자기 잠자다가 편안하게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단비는 시무룩해졌다. 몇 해 전, 할아버



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펐던 기억이 떠올라서. 단비는 할머니도 할아버지처럼 어느 날 먼 하늘나라로 갈까 겁이 더러웠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다음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멋진 데도 모시고 갈게요. 알았지요?”

단비는 할머니의 어깨와 팔을 다시 주무르며 재롱을 떨었다.

그러다가 단비는 문득, 사람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궁금하였다. 단비는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졌으나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단비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할머니, 아빠 엄마, 단비가 둘러앉았다. 아빠는 할머니랑 고향 이야기를 하였다. 아빠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빠,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요즈음은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도 편리

해져서 옛날보다는 수명이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허허, 우리 단비가 왜 갑자기 그런 문제에 관심이 생겼을까?”

“호호, 저 아이가 나더러 백 살까지 살라고 하더구나.”

“그랬군요.”

“우리 식구 모두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고 물어 보는 거예요.”

“글쎄다. 책에서 보았는데 신석기 시대의 평균 수명은 29세였는데, 점점 늘어났다더구나. 정확한 건 나도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병이나 사고가 아니면 80세 이상까지는 살지 않을까? 요즘엔 나이든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져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구나.”

“예, 노인정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아주 많으세요.”

단비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떡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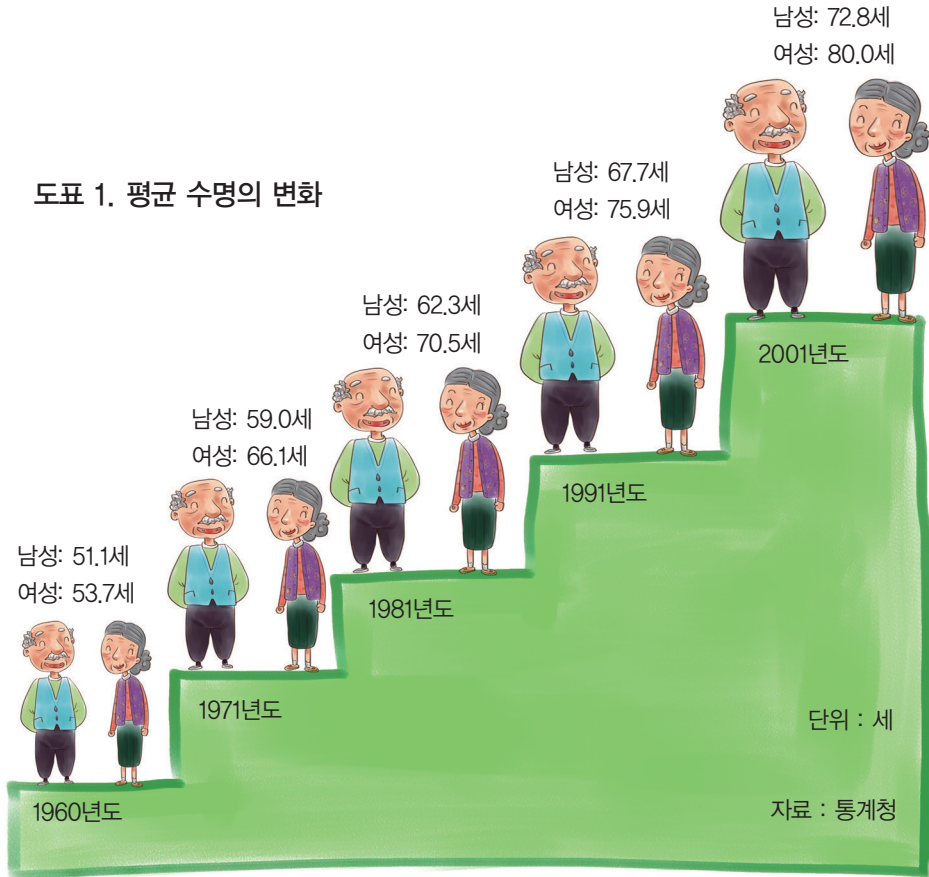
다음 날, 아빠는 도서관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수명에 관한 자료를 복사해 왔다.

“자, 네가 궁금하게 여기던 게 여기 있다.”

거기에는 평균 수명의 변화에 관한 그림과 표도 있었다.



도표 1. 평균 수명의 변화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60년도에 53.7세였는데 2001년도에는 80.0세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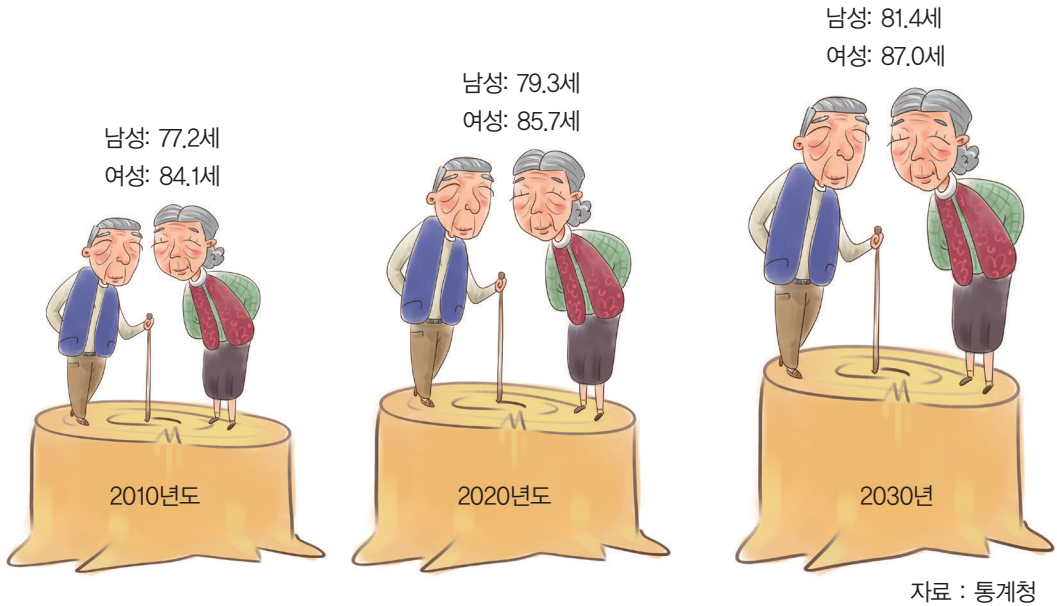
“여성은 26.3세가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단비는 놀라서 물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걸 보아라.”

아빠는 <도표 2>를 가리켰다.

도표 2.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 추이



“우와, 평균 수명이 앞으로도 이렇게 길어지면 할머니, 엄마, 아  
빠 모두 백 살까지는 거뜰히 사시겠네요!”

“아마 그럴 게다. 지금보다 의학도 발달하고 생활환경도 더 좋  
아질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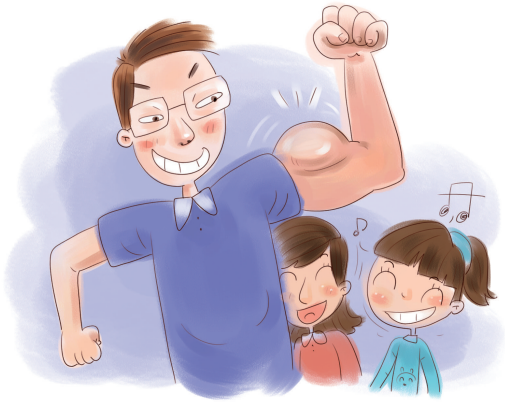
“아휴, 안심이에요.”

단비의 얼굴이 환해졌다.

“안심? 뭐가 안심이라는 거지?”

“헤헤, 이다음에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때까지 엄마 아





빠가 오래오래 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단비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고, 마냥 철딱서니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 컸네. 공부는 뒷전이고 만날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그런데 김단비! 나중에 호강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 당장 말 잘 듣는 단비가 더 좋다.”

엄마는 단비의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렸다.



“넵, 당근이지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백 살까지 사실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을게요.”

단비는 웃기는 몸짓을 하였다.

“아빠, 일본은 4위인데 왜 우리나라는 28위밖에 안 돼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응, 그건 그만큼 음식이나 운동, 생활 습관 등 여러 면에서 우



리보다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지. 2011년 100세가 넘는 한국인은 약 1천 명 정도지만 일본은 4만 명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단다. 이걸 보면 선진국이 개도

100세 이상 인구, 2011년



국이나 후진국에 비해 평균 수명이 훨씬 높은 걸 알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139위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나. 나라의 경제 수준, 국민 소득과 평균 수명은 그만큼 연관이 있다는 증거란다. 그러나 단비야, 그렇게 자꾸만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란다.”

아빠는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아빠, 그게 왜 문제가 되요?”

단비는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 ‘고령 사회’의 뜻

고령 인구: 65세 이상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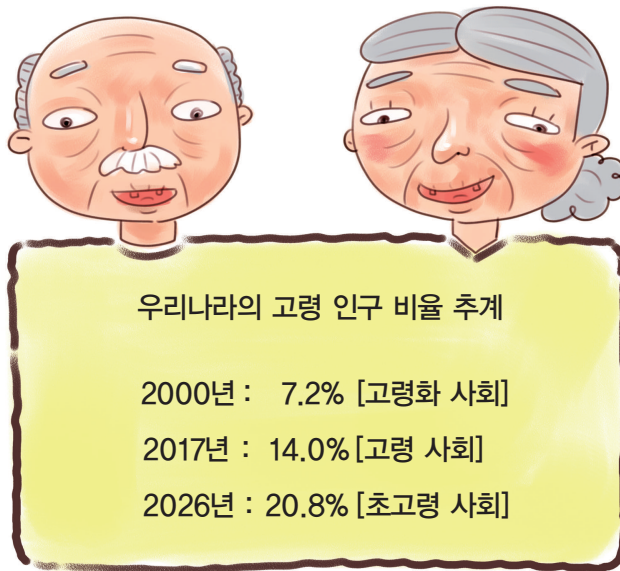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7퍼센트 이상인 사회

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14퍼센트 이상인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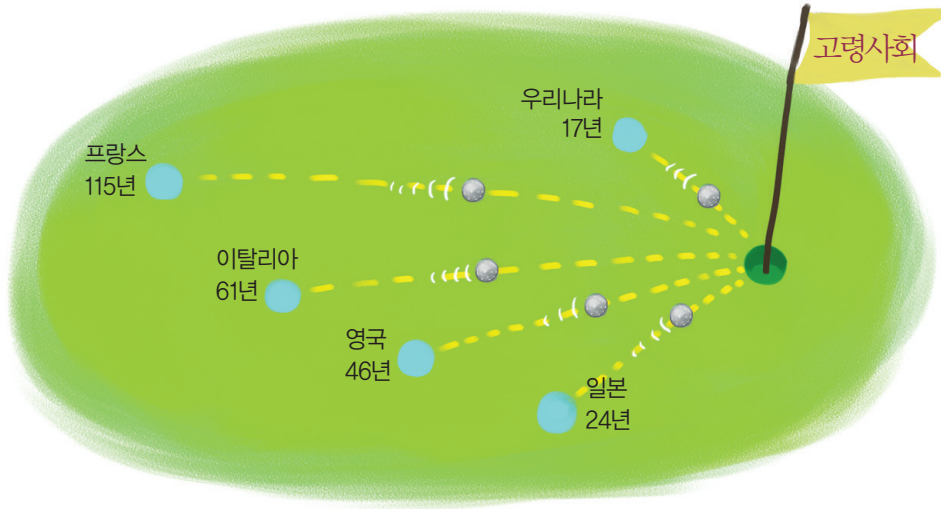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사회

“이 통계 자료를 좀 보렴. 2011년 영국 통계청에서 국가별 평균 수명을 조사한 거야. 우리나라가 몇 위나 될 것 같으니? 29위란다. 어디 보련?”

아빠는 단비에게 통계 자료를 보여 주었다.



##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뀐 기간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일하는 인구보다 일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해지지.”

“그럼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드리면 되잖아요.”

“참 좋은 이야기구나. 그러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젊은 층의 실업자가 생길 게 아니냐. 우리나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서서히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





면 국가나 개인이나 미리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  
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  
을 위한 양로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노동력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단다. 그래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공

원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옳지, 며칠 전 신문에 나온  
통계를 보자.”

아빠는 소파 옆에 있는 신문 하나를 펼쳤다.

### 〇〇일보

27년 뒤 서울 시민 2명이 노인 1명 부양

“... 27년 뒤에 서울에서는 15-64세인 시민 2명이 65세 이상인 노인 1명  
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빠,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단비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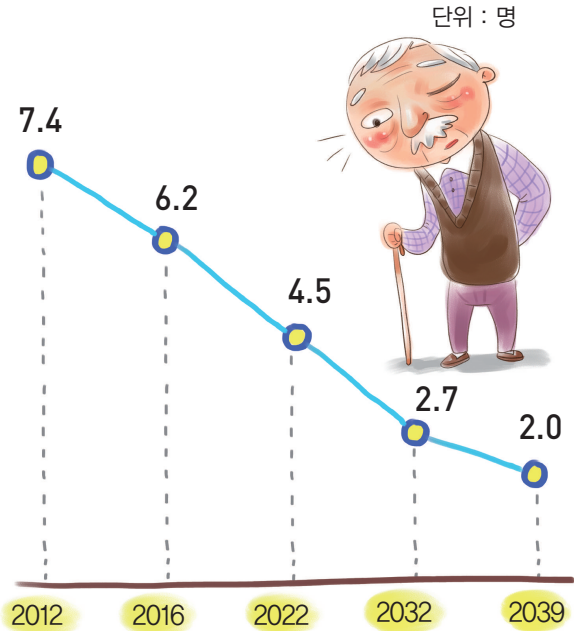
“그렇단다. 그야말로 노인 문제가 코앞에 닥쳤구나.”

“아빠, 우리 학교 앞에 붕어빵을 굽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옛날에 경찰관이셨대요. 집에

서 노는 것보다 일도 하고 돈도 벌기 때문에 아주 즐겁다며 가끔 고아원에 가서 붕어빵을 구워 주는 봉사도 하신대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나. 나도 큰 회사에 다녔던 분들이 택시기사, 퀵 서비스 배달원, 경비원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니 참 딱한 일이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1년 ‘100세 시대 프로젝트’를 내놓고 여러 관계 부처와 정책 개발을 협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 전망



자료 : 서울시





하고 있다더구나. 수명 백 세 시대를 앞두고 국민을 위해 국가 정책 세우려는 거지.”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다음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아주 호강시켜 드릴게요.”

단비는 큰소리를 탕탕 쳤다.

“하하! 그거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은 걸. 하지만 단비야, 걱정 마라. 아빤 지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저금도 하고 있고, 연금도 열심히 내고. 엄마 아빠는 가게에서 번 돈의 일정 금액은

노후 자금으로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  
을 위해 아침마다 뒷산에 열심히 올라가고, 담배도 끊었고.  
어떠냐? 이 정도면 몇십 년 후에 멋진 할아버지가 될 만하지?”  
“호호, 우리 아빠 최고!”  
단비는 아빠의 품에 안겼다.



## 내 옷 어때?



“어머! 양미라. 너, 또 새 옷 사 입었어?”

아이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자주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 오늘은 모자 깃에 털이 달린 빨간색 점퍼를 멋지게 차려 입고 나타났다.

“호호, 내 옷 어때? 멋지지?”

“그래, 어디서 샀니? 나도 엄마한테 사 달래야지.”

다영이가 미라의 옷을 이리저리 만져 보며 말했다. 하지만 미라는 입가에 뱅글뱅글 웃음을 매단 채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단비는 스케치북을 사려고 큰길가에 있



는 문방구로 갔다. 단비는 스케치북을 사들고 막 나서다가 그 옆 가게 안에 있는 미라를 보았다. 그 가게는 쓰지 않는 옷, 가방, 책 따위를 파는 ‘되살림 숲’이라는 곳이었다. 미라는 엄마와 함께 열심히 옷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 미라가 이때까지 입고 온 옷들이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이 아니라 저기서 산 헌 옷이었던 말이야.’

단비는 입이 떡 벌어졌다. 미라는 초록색 스웨터를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앞모습도 비췄다 옆모습도 비췄다 하며 살펴보았다.

단비는 행여 미라가 볼까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미라는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잖아. 언젠가 엄마도 그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아이들이 그러는데 미라 아빠는 큰 회사에서 높은 분이러던데 왜 저런 곳에서 옷을 사 입지?’



단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단비가 예상한 대로 미라는 그 초록색 스웨터를 입고 교실에 들어섰다. 단발머리에 얼굴이 하얀 미라한테 아주 잘 어울렸다.

“야아! 양미라, 오늘도 또 새 옷을 입었네? 너희 집이 아무리 부자지만 엄마가 그렇게 만날 새 옷을 사 주시니 놀랍다.”

이슬이는 부러움 반 시샘 반으로 종알거렸다.

“호호, 내가 말해 줄까? 너희들도 알지? 저기 해님 문방구 옆에 있는 되살림 숲이라는 가게 말이야. 거기가 내 단골 옷가게야.”

“그, 그게 정말이니?”

“남이 입던 옷을 모아서 파는 가게 말이야? 그럼 네가 입고 오는 옷들이 다 남이 입던 거라고? 정말!”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였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아주 많으셔. 그래서 자원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재활용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셔. 작아서 못 입는 옷이나 신발, 다 읽은 책, 쓰지 않는 물건을 그냥 내버리면 얼마나 자원 낭비가 심하겠니? 하지만 누군가 그런 걸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싼값에 팔면 그만

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잖아. 그게 자원 절약이고.”  
미라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아니, 헌 옷을 재활용하면 자원 절약이 된다고?”  
이슬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집집마다 옷장에 넣어 둔 채 입지 않는 옷들을 꺼내어  
그런 재활용 센터나 물물교환 센터에 내놓기만 해도 수많은 자  
원을 절약하는 셈이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 뻔한 옷들을 되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 물건들을 기증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팔고 그 기금을 좋은 일에 쓰면 더욱 좋고.”

미라는 술술 이야기를 풀었다. 반 친구들은 조금 낯선 이야기인지 미라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고 있니?”

“미라가 재활용 이야기를 해 주고 있었어요. 미라가 오늘 입고 온 옷도 재활용 가게에서 산 거래요.”

수정이가 나서서 말했다.

“호호,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선생님도 그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 어디 보자, 내가 스크랩한 기사가 어디 있을 텐데. 옹지, 여기 있구나.”

선생님은 스크랩 모음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다.

리사이클링 업체의 수

년도	2000년	2005년	2010년
업체의 수	4,041개	6,666개	8,669개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어떠냐?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증가하였지? 예전에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던 물건들을 종류별로 수거하여 되살리는 가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그뿐 아니지. 요즈음에는 헌 옷이나 헌 물건을 그냥 되파는 게 아니라, 재창조하여 전혀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파는 예술가들도 많아졌다. 길거리에 걸려 있던 헌 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고, 헌 옷들을 이리 자르고 저리 붙여서 새로운 옷을 만들고.

페트병으로 멋진 조각이나 장식품을 만들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젊은 예술가들 말이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요즈음에는 옷이나 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부품들도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선생님은 자상하게 설명하였다.

그때 승철이가 손을 들 듯 말 듯 하다가 번쩍 들었다.

“선생님, 그럼 저의 할아버지처럼 폐품 수집상을 하는 분도 재활용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까지 인천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늘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곁에 잘 가지 않았어요. 폐지나 고철을 만지시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호호호! 승철아, 할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 때, 예전에는 폐품 수집상을 어려운 사람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다. 요즘은 고물상이라는 말 대신에 자원 수집 업체라고 한다. 그중에는 규모가 작은 업체도 있지만 그런 자원들을 사들여서 용도별로 다시 가공한 뒤 제철소나 제지소 등에 납품하는 큰 업체들도 많다는구나. 요즘에는 연



간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자원 수집 업체도 많다. 대단하지 않니?”

“우와, 백억 원이 넘어요?”

아이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승철이의 입은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 맞지요?”

승철이는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헤헤! 승철아, 그래. 이제부터 할아버지를 친절하게 대해 드려라. 이다음에 그 일을 너한테 물려주실 지도 모르잖아.”

미정이가 부러운 듯 말했다. 선생님  
님은 다시 빙그레 웃었다.

“그래, 미정이가 말처럼 앞으로 재활용 사업은 아주 전망이 밝단다. 희귀 금속은 광산에서 캐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폐가전제품에서도 희귀 금속을 뽑아낸단다. 그래서 도시 광업이라고 하지. 편의점처럼 곳곳에 가맹점을



모집하고, 각 가맹점에서 도시 광업으로 뽑은 희귀 금속을 모아다가 대기업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도시 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재활용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번에는 업사이클링 이야기를 하마. 업사이클링은 폐자원으로 전혀 새로운 것, 더 훌륭한 것으로 창작하는 일을 말한다. 미국 뉴욕의 세르지오 시우바라는 디자이너는 2006년에 오일 램프라는 예술 작품을 발표했다. 그 디자이너는 못 쓰게 된 백열전구 두 개 속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끼우고, 받침대로 고정된 등잔을 만들었다. 이 등잔은 그냥 등잔이 아니라 예술품이어서 하나에 650달러에 팔렸다고 한다. 재료비는 단돈 1달러도 들지 않지만 창작한 값은 650달러이지.”

“으아악!”

아이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때, 단비는 유럽의 여러 화가들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본 피카소의 ‘황소 머리’라는 작품이 문득 떠올랐다.



“선생님, 피카소는 길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가져다가 안장과 핸들을 떼어 냈대요. 그리고 안장 위에 핸들을 붙인 작품을 만들고 황소 머리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 황소 머리가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대요!”



단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구나.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던 헨 자전거가 그야말로 업사이클링 작업으로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거지. 어떠냐? 너희들도 안 쓰는 물건이나 고물로 무언가 걸작을 만들어 보렴.”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이들은 이젠 당당하게 헨 옷을 사 입을 미라가 얼마나 근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 동생을 입양했다고?

단비는 늘 혼자였다. 엄마 아빠가 '즐거운 빵집'에서 일하는 동안 혼자 학원에 가고, 혼자 간식을 먹고, 혼자 숙제하고. 단비가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집에는 시간제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셔서 돌봐 주곤 했지만 5학년이 되고부터 모든 걸 혼자 해야만 했다.

어느 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우르릉 광광 천둥이 울어 났다. 혼자 숙제를 하던 단비는 너무 무서워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썼다.

‘엄마한테 갈까?’

그렇지만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가게까지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엄마가 집에 와 주면 좋겠지만 가게가 이 시간쯤 제일 바쁘다는 걸 단비는 알고 있었다.

‘이럴 때 동생이라도 있으면 좀 좋아.’

단비는 달랑 혼자인 게 불만이였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좀처럼 동생을 낳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겨우 가게가 자리를 잡았는데 또 다시 육아 때문에 묶이긴 싫다. 난 그저 너 하나만 잘 키울 거야. 알았지?”

뒤늦게 바리스타‘커피 명장’ 자격증을 따고 가게에서 커피며 음료를 맡고 있는 엄마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아이, 무서워.”

일기 예보에서 태풍이 몰아칠 거라더니 번쩍번쩍 우르릉 광광, 천둥 번개는 좀처럼 그칠 줄 몰



랐다.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소리가 들렸다.

“우리 단비 무서워서 침대에 쭉 들어가 있었구나. 무슨 가을 태풍이 이렇게 심한지, 원! 잘 자란 과일이나 곡식들이 다 떨어지면 어찌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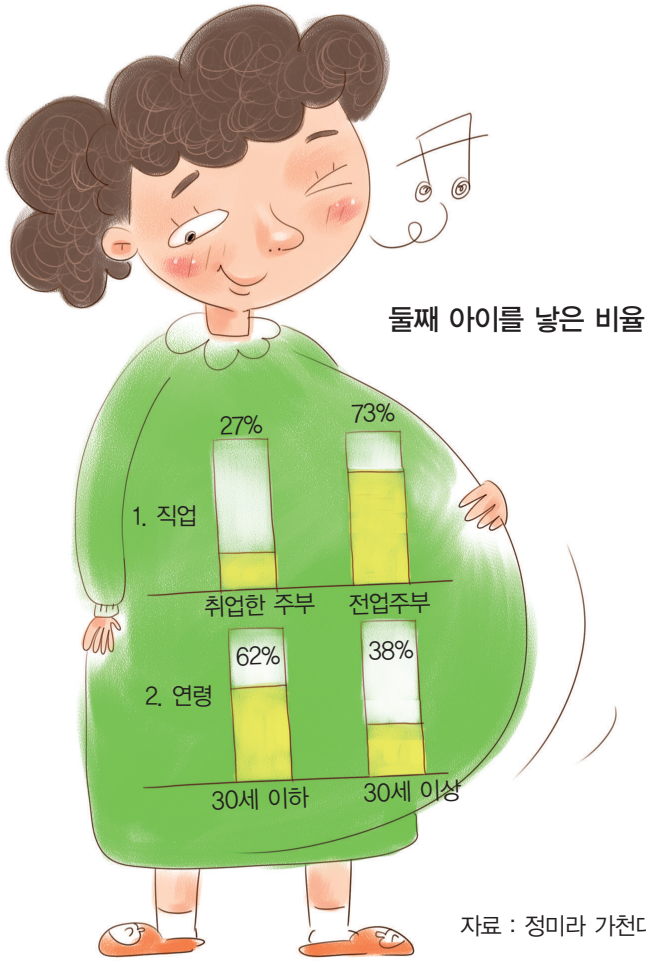
“엄마, 나도 동생 하나 낳아 줘요. 이럴 때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무섭지 않고 좋잖아.”

단비는 잔뜩 골이 난 얼굴로 말했다.

“애고, 또 그 얘기가? 엄마 나이가 내일이면 마흔인데 어떻게 둘째를 낳는다고 그래? 며칠 전에 본 신문에서도 30세 이상 워킹맘\*일수록 둘째 낳기 꺼린다 라는 기사가 나왔나. 어디 있나. 네가 또 동생 타령할 줄 알고 내가 신문을 오려 뒀는데. 옳지, 여기 있다!”

엄마는 신문에서 오린 기사를 내보였다. 언제부터인가 단비네 식구들은 어떤 의견을 내세울 때 통계 수치나 도표를 내보이는 일이 잦아졌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대충 얼버무리는 것보다 한눈에 보이는 통계가 한결 설득력이 있었다.

\* 워킹맘 : 직장을 다니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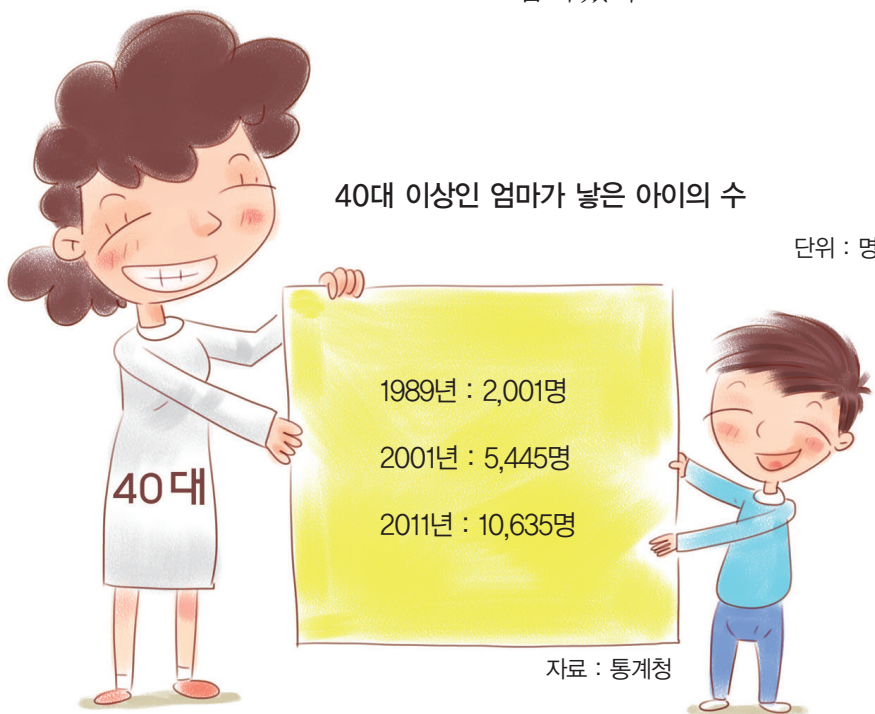
“보려무나. 둘째 아이를 낳은 비율이 전업주부보다 취업한 주부가 낮다. 거기에서 서른 살이 안 된 엄마들보다 서른 살이 넘은 엄마들의 비율이 아주 낮다. 직장 일도 하고 나이도 더 먹은 엄마들은 둘째를 키우기 힘들다. 단비야, 엄마처럼 직장 생활도 하고 서른을 넘은 나이에. 거기에서 이 엄마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잖니. 둘째를 낳아 기르는 건 무리다. 강요하지 마라?”





엄마는 잘라 말했다. 단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단비는 쪼르르 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통계청의 '어린이 통계 동산'에 들어갔다. 이것저것 둘러보며 통계 지식을 얻은 덕분이었다. 단비는 검색창에 '40대 산모'라고 입력했다.



2012년, 통계청의 출생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의 산모가 낳은 아이의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1만 635명을 기록하였다. 이런 아이의 수는 지난해보다는 14퍼센트가 늘어났고, 10년 전 5445명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년 이후 40대 산모가 가장 적었던 1989년(2101명)에 비해선 약 다섯 배 많다.

지난해 40세 이상 산모 낳은 신생아의 비중도 전체의 2.26퍼센트를 기록해 처음으로 2퍼센트대를 넘어섰다. 40대 산모 수는 6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 찾았다, 찾았어! 엄마, 엄마!”

단비는 우당탕탕, 보물이라도 찾은 듯 엄마에게 달려갔다.

“아휴, 다 큰 애가 왜 그렇게 뛰고 그래? 아래층 할머니 까다로 우신 거 알면서.”

“헤헤! 엄마, 나도 엄마처럼 통계자료 하나 보여 주려고요. 이걸 보면 엄마도 마음이 달라질 걸.”

“뭘데 그렇게 호들갑인지. 어디 보자.”



엄마는 단비가 프린트한 자료를 받아서 읽었다.

“엄마, 이제 동생 낳아줄 거죠? 사십대 산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잖아요. 난 개구쟁이 남자 동생이 좋아요! 총싸움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타 줄게요.”

단비는 입이 벌쭉 벌어졌다.

“김단비, 네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그럴 맘이 없다. 새삼스레  
아기를 낳아 키울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 꿈 깨라, 꿈 깨!”

엄마의 말에 단비의 꿈은 유리그릇 깨지듯 깨졌다.

“엄만 내 맘도 모르고!”

단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단비는  
피아노 학원에 다녀오다가  
미라가 엄마와 어디론가 가  
고 있었다.

“미라야, 어딜 그렇게 급  
히 가니?”





“응, 내 동생이 오는 날이 내일이야.”

“뛰어, 동생? 너 동생 없잖아?”

“헤헤! 나 동생 생겼어. 지금 천사영아원에 있어. 내일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래서 침대 사러 가는 길이야. 도배도 하고 아기 옷이랑 목욕용품도 다 사두었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아기야.”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어 ...! 동생하고 내일부터 같이 사는 거야. 처음 본 순간 내 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주 귀여운 여자 아기야. 그렇게 천사처럼 곱고 예쁜 아기가 내 동생이라니! 나중에 내 동생 보여 줄게.”

미라는 들뜬 소리로 말했다.

단비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입양 기사를 보긴 했지만 미라에게 이렇



게 동생이 생겼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 미라는 기빠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친동생이 아닌데.’

단비는, 엄마가 직접 아기를 낳지 않고도 어디선가 동생을 데려  
올 수도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그리고 보니 문득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갓난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텔런트 부부가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린 이 아기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소중한 우리 딸이에요.”

부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뽀뽀하였다.

‘그래! 그런 방법도 있구나. 엄마도 입양이라면 찬성할 거야.’

단비는 집으로 가려다가 ‘즐거운 빵집’ 으로 갔다.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엄마!”

“아니, 피아노 학원엔 안 가고?”

갓 구운 빵을 열심히 포장하던 엄마가 물었다. 아빠는 빵을 배  
우러 온 언니들에게 강의하다 단비에게 손 인사를 하고.

“엄마, 우리도 동생을 입양해요. 네?”

“뭐라고? 느닷없이 동생을 입양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니?”



단비는 미라네 이야기를 하며 엄마를 졸라댔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라네처럼 동생을 데려오면 되잖아요.”

“아이고, 아기가 인형이냐? 아기만 데려오면 다 되는 줄 아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바쁜데 그 아기를 누가 돌봐 주니? 젖은  
 누가 먹이고 기저귀는 누가 갈아주니? 강아지 고양이라도 못  
 한다.”



“엄마! 왜 강아지, 고양이, 인형 타령이야.”

단비는 껍 소리를 질렀다.

“갈래요!”

단비는 토라져서 돌아섰다.

다음날, 단비가 교실에 들어섰다. 미라는 새로 생긴 동생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이들은, 엄마가 낳은 동생이 아니라 입양한 동생이라는 게 낯선 모양이었다.

“난 이상해. 내 진짜 동생이 아니잖아.”

“그래도 동생으로 삼았으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로지지!”

아이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웠다. 단비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자 엄지와 검지를 비벼 딱 하고 튕겼다.

‘우리 반 아이들의 입양에 관한 생각을 통계로 나타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날, 조회가 끝났다. 단비는 바로 선생님께 자기의 생각을 여쭙었다. 선생님은 활짝 웃었다.

“단비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통계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도 자주 쓰인다. 대통령 선거 때 출구 조사를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여행지를 조사할 때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등을 조사할 때처럼 말이다. 그럼 이번에는 단비가 친구들과 몇몇과 함께 설문을 만들고, 우리 반 아이들이 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면 어떨까? 학급 회의 시간에 조사해 보자.”

“네, 해 볼 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단비에게 숙제를 맡기자 단비는 들 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점심시간. 단비는 반장 수정이, 한솔이, 미라, 형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학급 컴퓨터를 이용해서 반 아이들 수만큼 프린트를 하고, 학급 회의 시간에 친구들에게 나눠 주었다.

아이들의 생각이 담긴 설문지가 모였다. 단비는 수정이, 한솔이, 미라, 이슬이, 정호와 함께 함께 답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그걸 발표하였다.





## 입양 기관을 통해 동생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 5학년 5반 39명

**질문 1.** 고아원이나 영아원 등 입양 기관에서 동생을 입양하는 걸 찬성합니까? (25명)  
아니면 반대입니까? (14명)

**질문 2.** 위의 질문에 찬성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동생이 생기면 좋으니까(12명)
- 2) 엄마 아빠가 결정한 일이니까(6명)
- 3) 함께 놀 수 있어서 (7명)

**질문 3.** 위의 질문에 반대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아서(7명)
- 2) 내 물건을 만지고 귀찮게 굴 것 같아서(5명)
- 3) 진짜 동생이 아니니까(2명)

**질문 4.** 동생의 입양을 반대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생기면 어떻게 대해 줄 생각입니까?

- 1) 내 동생이니까 사랑할 것이다.(11명)
- 2) 그냥 무덤덤하게 대할 것이다.(3명)



“야아! 정말 놀랍다.”

마침내 통계 자료가 나오자 반 아이들은 손뼉을 쳤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로 나타나자 스스로들 놀란 모



양이었다.

선생님도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떠냐? 이번 설문 조사로 입양에 관한 너희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특히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입양을 반대했지만 막상 동생이 생기면 받아들일 거라는 학생이 11명이라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만큼 너희들 마음이 따스하고 사랑이 많다는 증거니까. 어떠냐?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젠 세상뿐 아니라 너희들 마음까



지 보게 되었으니 정말 신기하지?”

“네, 선생님. 통계는 마술 같아요. 그래프나 도표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입양에 관한 너희들의 생각이 이처럼 긍정적인 것처럼 요즘 사람들의 인식도 점점 달라지고 있단다. 예전에는 해외 입양 아동이 많았지만 점점 국내 입양 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게다가 뜻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갈 데 없는 장애 아동까지 스스럼없이 입양을 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단다. 이왕 입양에 관한 주제를 꺼냈으니 좀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찾아보자꾸나.”

### 입양 아동 수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1,770	1,694	1,564	1,641	1,461	1,332	1,338	1,368	1,314	1,462	1,548
국외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계	4,206	4,059	3,851	3,899	3,562	3,231	2,602	2,618	2,439	2,475	2,664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 입양 아동 수

단위 : 명

	전체			국내			국외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계	비장애	장애
2001	4,206	3,449	757	1,770	1,756	14	2,436	1,693	743
2002	4,059	3,216	843	1,694	1,678	16	2,365	1,538	827
2003	3,851	3,182	669	1,564	1,544	20	2,287	1,638	649
2004	3,899	3,187	712	1,641	1,634	7	2,258	1,553	705
2005	3,562	2,798	764	1,461	1,434	27	2,101	1,364	737
2006	3,231	2,506	725	1,332	1,320	12	1,899	1,186	713
2007	2,652	2,112	540	1,388	1,348	40	1,264	764	500
2008	2,556	2,403	153	1,306	1,277	29	1,250	1,126	124
2009	2,439	2,306	133	1,314	1,278	36	1,125	1,028	97
2010	2,475	2,223	252	1,462	1,415	47	1,013	808	205
2011	2,464	2,189	275	1,548	1,483	65	916	706	210

자료 :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2011년 기준 23.6%로 미미한 상황임.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현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과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의 의료비를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하고 있음.

선생님은 컴퓨터 파일에서 입양에 관한 통계 자료를 열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전 양반들은 어디 가문이나 뉘 덕 핏줄이나 하며 따지는 풍조가 심했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발전하였다. 이제는 지위가 높은 낮은 어떤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통계로 볼 수 있지? 이처럼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국민은 나보다 못한 남을 배려하지. 오늘 단비 덕에 재미있게 공부하였구나.”

선생님이 단비를 보며 손뼉을 치자, 반 아이들 모두가 까르르 웃으며 손뼉을 쳤다.

## 내 스마트폰이 어디로 갔지?

“어! 어디 갔지? 내 스마트폰이 없어졌어!”

운동장에서 체육을 마치고 온 수혁이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응, 내 스마트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 뒀는데.”

“잘 찾아봐. 가방 속에 넣은 게  
어디 갔겠어. 아 참! 내가 전화를  
걸면 되겠다.”



미영이는 하늘색 수첩처럼 생긴 스마트폰을 꺼내어 수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으악! 그거 없으면 큰일인데.”

수혁이는 울먹이며 안절부절못했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책을 펼칠 생각도 않고 가방이며 책상 서랍이며 바지 주머니를 더듬고 또 더듬었다. 수혁이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자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제 스마트폰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가기 전까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번 생일 선물로 사 주신 건데 말이에요.”

“혹시 체육복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가 어디서 흘린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아라.”

선생님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며칠 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어 장난치는 걸 보고, 아침에 등교해서 오후에 집에 갈 때까지 절대로 스마트폰을 꺼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아니어요. 분명히 제 가방 속에 넣어 두었어요. 으흐흐 ……”

수혁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훔쳐 갔나 봐.”

“체육 때문에 다들 운동장에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단 말  
이야?”

“요즈음 스마트폰을 도난당  
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  
래.”

수혁이가 하는 모습을 본 아  
이들이 서로 수군수군하였다.

요즈음 단비네 반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핸드폰을 쓰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일 순위가 스마트폰이었다. 아직 핸드폰을 쓰고 있는 단비도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들이 부러웠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카카오톡도 하고, ‘애니팡’ 이나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게임을 하며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았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며 킁킁거리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

수혁이는 스마트폰을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오늘 아침에 너, 내 스마트폰 한번만 보여 달라고 했지? 혹시 그런 다음 돌려주지 않은 거 아니야?”

수혁이는 세철이에게 따지듯 물었다.

“뭐라고? 보고 나서 바로 돌려줬잖아. 너 지금 내가 너의 스마트폰 훔쳐 갔냐고 묻는 거야? 이게 정말!”

세철이는 느닷없이 도둑으로 몰리자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잊고 수혁이에게 씩씩거렸다.

“수혁아, 친구를 함부로 의심하면 못 쓴다. 우선 이동 통신사에 신고하여 통화를 정지하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렴.”

선생님은 수혁이에게 일렀다.

“안 돼요, 안 돼! 엄마 아빠가 어렵게 사 주신 걸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잃어버린 걸 알면 혼나요.”

“하지만 언제까지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잖니? 혹시 누군가가 네 스마트폰을 함부로 써서 통신비가 많이 나오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쩌려고. 물론 요금 한도를 정해 놓았겠지만. 그런 다음에 더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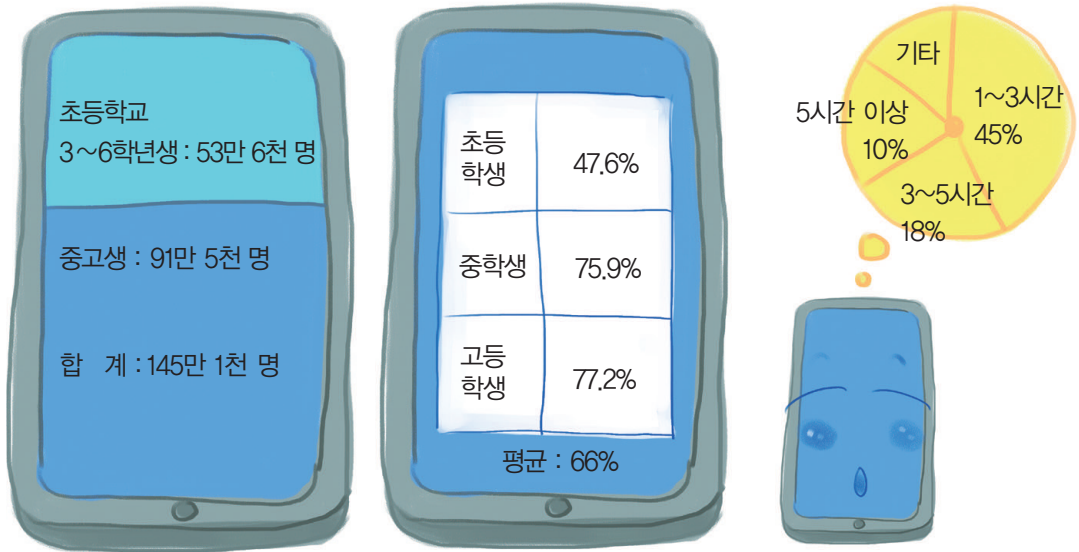
선생님은 수혁이를 달래었다. 그러다가 노여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즈음 학교 안에서 종종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스마트폰은 값도 비싸고 아이들이 갖고 싶은 물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초등



학생에게 과연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지. 그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저장하고, 게임을 하는 데에 쓰기에는 너무 사치품이 아니니? 게다가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옆 사람과 말도 안 하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자료를 잘 보렴.”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과 하루 평균 사용 시간



1) 조사 대상 학생

2)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

3)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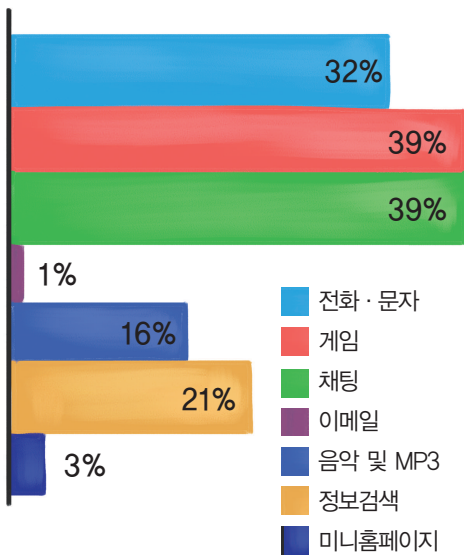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교육청, 2012년 9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선생님은 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였다.

“자! 너희 각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렴. 하루에 적게는 한 시간을, 많게는 다섯 시간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이 잘 하는 일일까? 도대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스마트폰을 무엇을 하는 데 쓰니까?  
(복수로 응답할 수 있음.)



조사 대상 : 고양시 초등학교 5~6학년 81명

“이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데 쓰는 시간보다 게임하거나 채팅하는 데 더 많이 썼다. 너희도 이와 비슷하겠지? 스마트폰이 있으면 정보를 쉽게 찾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전자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 그렇지만 비싼 스마트폰을 오락기로 사용하는 건 낭비가 아니겠니?”

선생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통계대장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면 여러 가지 나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그래, 통계 대장 단비가 앞으로 나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추려서 통계를 뽑아 보도록 하렴.”

선생님이 단비에게 말했다.

“네, 선생님!”

단비는 싹싹하게 대답하고 칠판 앞으로 나갔다.

언제부터인가 단비는 통계를 그림이나 표로 만들어 잘 이용하는 아이로 통했다.

“단비야,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보여 드리게 초등학생 용돈에 관한 통계 자료 좀 보여 줘.”

늘 용돈이 적어서 찢찢매는 동우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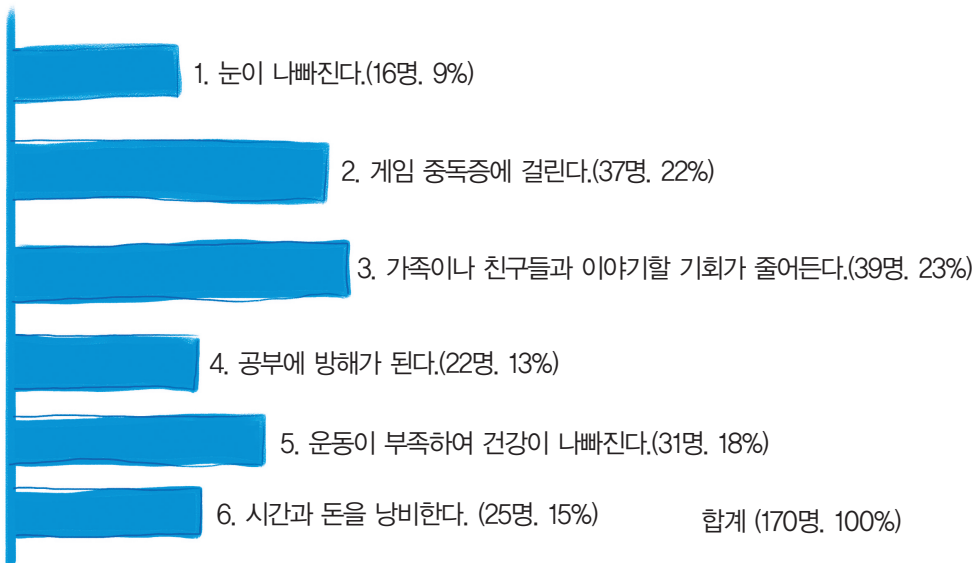
“헤헤,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통계로 알아봐 줄래?”

한솔이가 장난처럼 물었다. 아이들은 어린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난 통계를 가져다 줄 정도로 단비는 5학년 5반의 통계 대장이 되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선생님과 아이들의 칭찬을 받자 단비는 점점 더 통계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만큼 보는 눈도 밝아졌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각자가 자기 의견을 꺼내 보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제안하였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단비는 의견들을 모아 문제점을 간추려 문항을 만들고, 이 문항으로 친구들에게 물었다. 단비는 통계를 내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냈다.

선생님은 막대기로 3번 문항을 짚었다.

“여러분의 생각처럼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도 나타나기도 한다.”

선생님은 설명하며 칠판에 무엇인가를 썼다.

###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생기는 병

- 거북이 목 증후군
- 왼쪽 뇌만 발달하는 병
- 주의력 결핍 장애

선생님은 막대기로 칠판을 가리키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거북이 목 증후군은 거북이처럼 목을 앞으로 쑥 뺀 모양으로

몸이 굳어지는 병이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아주 위험한 병이다. 왼쪽 뇌만 발달하는 병이 일어나기도 한단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의 뇌파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의 뇌파와 아주 비슷하다.”

“와아, 무섭다.”

“이제부터 필요할 때만 써야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핸드폰이 멀쩡하니 더 써야지.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면 되니까.’

단비는 주머니 속에 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최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손을 높이 들었다.

“선생님! 제 누나는 중학생인데, 학교에서는 등교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건어서 하교할 때 나눠 준대요. 우리도 그렇게 해요. 스마트폰이 가방 안에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꺼내서 만지고 싶어요.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장난 문자도 보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요.”

“호호, 맞아요. 선생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꾸 친구들 사진

도 찍어 주고 싶고, 괜히 오락도 하고 싶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지만 옆에 앉은 친구가 꺼내서 만지작거리면 신경이 쓰여요.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그래.”

“나도!”

아이들은 진우의 말에 너도나도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일 아침부터 이 빨간 바구니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담아 놓기 바란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빨간 바구니를 가리켰다. 그때까지도 수혁이는 울상이었다.



그런 일이 생기고 며칠이 지났다. 6학년 2반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던 어떤 중학생 하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학생은 학교를 중퇴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스마트폰을 훔쳐 팔아 용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수혁이 스마트폰도 그 학생이 가져가서 이미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했다.

“으으윽! 일 년 동안 엄마 아빠 심부름을 도맡아 해 드리고 산 스마트폰인데!”

수혁이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씩씩거렸다.

“김수혁, 내 핸드폰 빌려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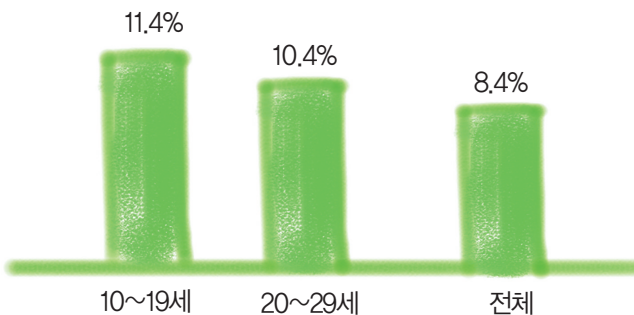
“헤헤, 이제부터 나랑 축구나 하자.”

친구들이 수혁이에게 한마디씩 거들었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할 수 없지 뭐. 이제부터 또 일 년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수혁이의 스마트폰 분실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다.

스마트폰 중독률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 할머니랑 사는 형우

친구들은 버스에 오르자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경기도 광릉 수목원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길이었다.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어 우적우적 먹는 아이도 있고, 음료수를 마시는 아이도 있었다. 옷차림이 여느 때보다 밝고 환했다. 단비도 어제 엄마를 졸라서 산 빨간 야구 모자를 쓰고, 같은 자리에 앉은 이슬이랑 수다를 떨었다.

광릉 수목원에 도착하였다.

“에이, 난 놀이동산이 더 좋은데.”

몇몇 친구는 불멘소리를 하였다. 놀이기구는 커녕 나무와 꽃밖에 보이지 않았다. 숲 해설가 선생님이 잣은 이런 잣나무에서 탄





열매이다라는 등, 광릉 복주머니난은 이곳에서만 자란다는 등, 사슴벌레는 이런 참나무 종류에서 산다는 등,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시무룩하던 아이들도 점점 호기심을 보였다.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은 전시실에서 한국의 자연이며, 살아 있는 숲 등, 영상 자료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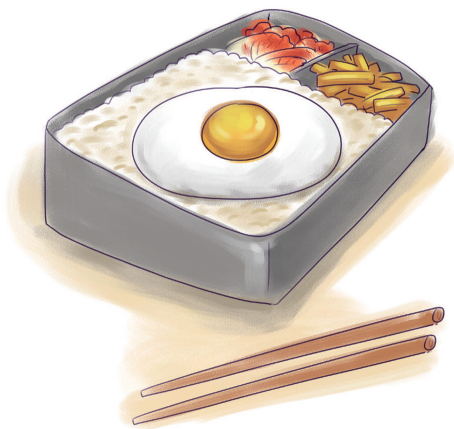
“너희가 교실에서 글로만 보고 배웠는데 여기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얼른 이해할 수 있지? 그리고 이런 영상 자료도 볼 수 있고. 이런 학습이 현장 학습이다.” 선생님이 지시 막대기로 영상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멋져요!”

“곤충이 너무 예뻐요!”

친구들은 숲에서 사는 나무, 꽃, 동물, 곤충들을 설명을 들으며 감탄하고 또 감탄하였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전시실에서 나와 너른 터에 앉아 점심 도시락을 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엄마가 싸 준 김밥이며 유부초밥이며, 샌드위치 등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때였다.



“에헤헤! 그게 도시락이야?”

“정말 웃긴다!”

아이들은 형우의 도시락을 보고 킁킁, 호호 웃어댔다. 밥 위에 달걀 프라이 한 개 그리고 단무지와 김치.

“왜 웃어? 우리 할머니가 싸 준 건데. 난 이게 맛있어.”

다른 아이들 같으면 쑹스러워 얼른 도시락 뚜껑을 닫았을 텐데 형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밥을 먹었다.

아이들이 그러는 것을 선생님이 보았다.

“형우가 먹고 있는 저 도시락의 이름은 추억의 도시락이다. 요즘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은 추억의 도시락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려무나. 집에 가서 할머니나 엄마 아빠께 여쭙 보렴. 예전에는 부자만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얹어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찾는단다. 요즘 추억의 도시락을 파는 음식점들이 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옛날이야기를 하듯 아이들에게 말했다.

“정말요?”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그때였다. 헤리가 김밥을 꾸역꾸역 먹다가 젓가락을 들고 슬그머니 형우 옆으로 다가갔다.

“형우야, 나 딱 한 숟가락만! 그 대신 내 김밥 한 개 줄게.”

“뒤편? 그래, 좋아.”

형우는 얼른 도시락을 헤리 앞에 내밀었다.

“야아, 나도! 내 유부초밥이랑 바꿔 먹자.”

이 아이 저 아이가 형우 앞으로 다가갔다.

“헤헤, 원하면 소원 들어주지. 뭐.”

형우는 도시락을 아이들 앞에다 내밀고, 김밥이며 유부초밥이  
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형우는 참 성격이 좋구나.”





단비는 씩씩한 형우를 추켜 주었다.

형우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돈 벌러 멀리 나가서 소식이 없자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반에서 축구도 제일 잘하고, 모습이 늘 밝고 쾌활하여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만약 내가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 살면 ……?’

단비는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때 우두커니 생각에 잠긴 단비를 보며 선생님이 말했다.

“김단비, 커피랑 샌드위치 정말 맛있구나. 엄마 아빠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렴.”

“네, 선생님.”

단비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단비가 소풍이나 현장 학습을 갈 때면 엄마 아빠는 정성을 다해 선생님이 드실 빵이랑 커피를 챙겨 주었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고 나서, 이리저리 뛰놀며 꽃도 보고 곤충도 보고, 여러 명이 아름드리나무를 팔을 둘러 안아보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

단비는 수정이랑 교실 청소를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가다가 손수레 밀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앞에서 자동차가 뺑뺑거리는데도 할머니는 계속 그쪽으로 손수레를 밀었다. 짐을 높이 실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할머니!”

단비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도와 손수레를 길옆에 세웠다. 승용차가 옆에 섰고 유리문이 열렸다.

“아니, 할머니!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찌려고 그러세요? 앞을 보고 다니셔야죠! 내 원 참!”



아저씨가 삐대질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뭐라는 게냐?”

할머니는 아직 영문을 모르고 단비에게 물었다.

“할머니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대요. 그러니까 짐을 너무 많이  
싣지 마세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옆에 있던 수정이가 답답하다는 듯 설명을 해 주었다.

“누가 많이 싣고 싶어서 싣나. 이렇게 싣어도 돈이 안 돼. 아침  
부터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이것밖에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폐지나 재활용품을 싣고 가는 바람에  
.....”

할머니는 입을 꾹꾹거렸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빈 상자가 할머니 키보다 높이 실려 있었다.

“수정아, 우리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릴래?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그래, 좋아. 오늘은 영어 선생님이 한 시간 늦으신댔어.”

영어 일대일 개인 과외를 하는 수정이는 흔쾌히 대답했다.

“할머니, 저희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집이 여기서 멀다. 저기 산꼭대기거든. 말은 고맙지만  
그만 두어라.”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할머니는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단비와 수정이는 뒤에서 밀었다. 손수레는 잘 굴러갔다. 그런데 언덕배기를 오를 때에는 모두가 헉헉거렸다.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집. 대문도 없고, 처마 밑 한 쪽에 현 신문지와 폐지, 빈 병들이 있었다.

“할머니, 지금 왔어?”

방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단비와 수정이는 그 아이를 보고 놀랐다. 형우였다.

“어, 어! 너희가 우리 집에 ..... 웬 일이니?”

“저, 그게, 그게 말이야 .....”

단비도 수정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에고, 형우를 아는 모양이구먼. 이 할미가 무거운 걸 끌고 오는 게 안돼 보였던지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다.”



“할머니,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아래에 두라니까. 내가 가서 끌고 오면 되는데.”

형우는 투명스레 말했다. 그러나 금방 돌을 보며 반갑게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올래? 우리 할머니가 만든 수정과 정말 맛있다.”

“그래, 고마워.”

단비와 수정이는 형우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 할머니 집하고 분위기가 비슷해.”

단비가 혼잣소리처럼 말했다.

“우리 할머니 집하고 ……?”

“응! 옷을 벽에 있는 못에 걸고, 그리고 가족사진들을 주르르 끼운 저 사진틀 …….”

“그래? 여기 이거, 우리 엄마 아빠랑 내 사진이야. 어때 나 엄청 귀엽지?”

형우는 사진틀 속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히죽 웃었다.

“정말이네! 아역 배우를 해도 되겠다. 병글병글 웃는 모습이 아주 귀엽다.”



수정이가 재미있다는 듯 대꾸하였다.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내왔다.

“어여 먹어. 무거운 거 끌고 오느라 힘들었을 테니.”

단비와 수정이는 뜨거운 고구마를 한 개씩 집어 들고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그렇잖아도 배가 출출했어요.”

“그래, 그래. 여기 김치국물이랑 함께, 서두르지 말고.”

그날 저녁, 단비는 엄마 아빠에게 형우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지 않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말하지. 요즘은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더구나.”

“그 원인이 뭐예요?”

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 우선, 음, …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했거나, 또는 사별했거나 ……. 그리고 실직했거나, 어떤 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양육을 포기했거나 ……. 음, ……. 그래, 우리 어림짐작으로 말할 게 아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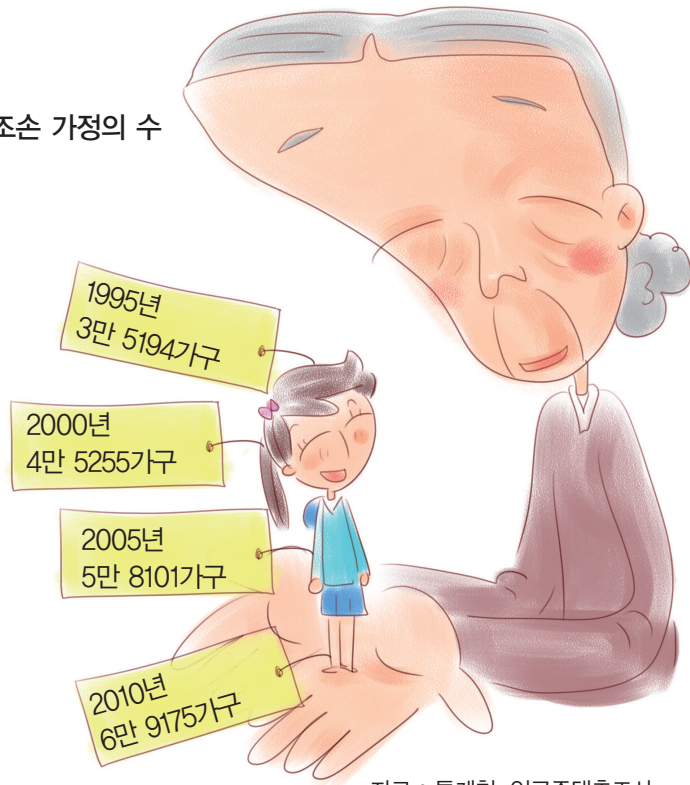
아빠는 단비에게 눈치를 보냈고, 단비는 눈을 반짝였다.

“아빠, 제가 통계청 사이트에서 조손 가정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찾아볼게요.”

언제부터인가, 단비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버릇이 생겼다.

“하하! 우리 단비가 통계 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구나. 어디, 필요한 통계 자료를 가져와 보렴.”

## 조손 가정의 수



아빠는 껄껄 웃었다. 단비는 통계청 사이트를 여기저기 뒤져 조손 가정을 조사하여 연구한 자료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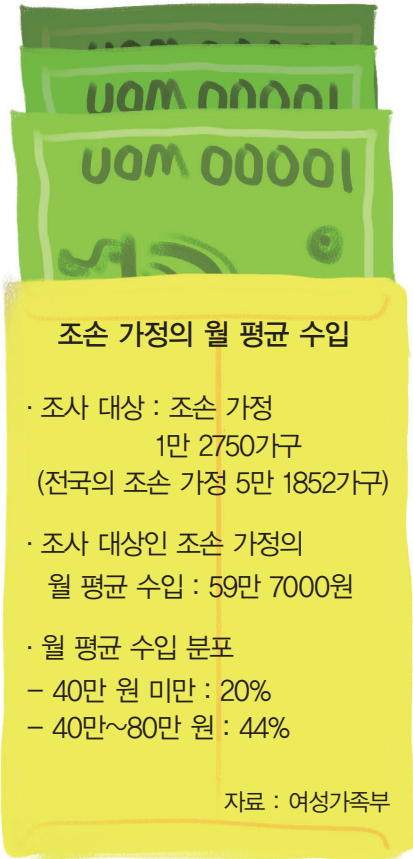
“아빠, 아빠! 이것 보세요. 아빠 말씀대로 조손 가정이 많아졌어요. 와!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만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단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경제가 나빠질수록 조손 가정이 더욱 늘어난다니 걱정이 구나.”

“아빠, 형우도 할머니가 폐지를 모아다 팔아서 사나 봐요. 그런데 그것마저 쉽지 않대요.”

“그래. 이 자료를 보니 조손 가정은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무척 심하겠구나. 마음고생만으로도 힘들 텐데. 쫓쫓!”



**조손 가정의 월 평균 수입**

- 조사 대상 : 조손 가정  
1만 2750가구  
(전국의 조손 가정 5만 1852가구)
- 조사 대상인 조손 가정의  
월 평균 수입 : 59만 7000원
- 월 평균 수입 분포
  - 40만 원 미만 : 20%
  - 40만~80만 원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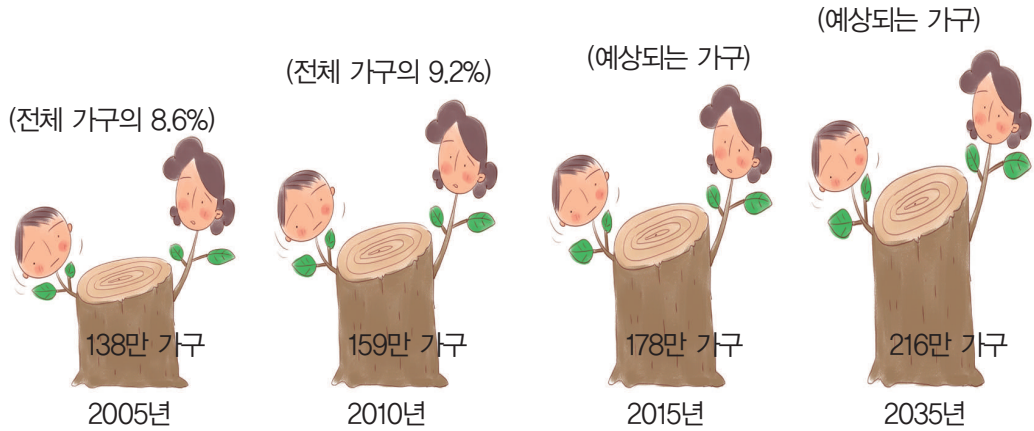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이 자료를 보니 조손 가정의 대부분이 생계를 이어 가기도 힘들겠구나.”

“아빠,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엄마하고만 또는 아빠하고만 사는 아이들은 들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반에 아빠 없이 엄마하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구나. 단비가 아주 예리하구나. 그런 가정을 한 부모 가정이라고 부른다. 어디, 이번에는 아빠가 한번 자료를 찾아볼까?”

## 한 부모 가정의 수



한 부모 가정 : 부모 중 1명과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정.

자료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아빠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보니 단비네 반 39명 가운데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하고만 사는 아이가 셋이었다. 형우, 은희, 민규였다. 그런데 은희와 민규는 표정이 늘 어둡고 말이 없어서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한 존재였다. 그리고 엄마하고만 사는 아이가 셋, 아빠하고만 사는 아이가 한 명이었다.

“아빠, 그런 친구들이 가여워요.”

“예전에는 한 부모 가정을 결손 가정이라 부르며 차별하였다.

그런 행동은 저 잘난 척하는 행동이지. 그리고 엄마든 아빠든

많은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

“아빠, 맞아요. 우리 반 미혜는 엄마하고만 살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고요. 잡지사 기자인 엄마랑 둘이 해외여행도 가고요, 음악회나 미술관에도 가고요. 치!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요!”

“호호, 엄마 아빠 들으라는 소리구나. 우리 단비, 그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네. 좋아! 이번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하고 미술관에 함께 갈게. 요즈음 반 고흐 전을 한다더라. 이 엄마도 반 고흐 좋아하거든!”

“엄마, 정말? 야아, 신난다! 우리 엄마 최고!”

단비는 뜻밖의 약속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엄마 목에 매달렸다.

“단비야, 우리 오늘 ‘조손 가정’ 과 ‘한 부모 가정’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 혹시 그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아이가 있으면 함께 가면 어떨까? 어차피 차 한 대로 가니까 함께 가면 좋잖아. 아빠가 특제 샌드위치도 만들어 줄게.”

“아빠! 모처럼 엄마하고만 오붓하게 데이트하려는데 …, 왜?”

단비는 소리쳤다. 아빠는 단비를 바라보았다.



단비가 보니 아빠의 눈은 멀뚱멀뚱, 입이 벌어져 있었다.

“아빠! 제 생각만 했어요. 생각해 보니 형우, 은희, 민규랑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요.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놀며 고희 그림도 보면 아이들도 좋아할 테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헤헤, 빨리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어요.”

단비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형우, 은희, 민규에게 이번 일요일에 함께 미술관에 가자고 쪽지 편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대찬성이라고 답장이 왔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뿌듯하지?’

단비는 실실 웃었다.



## 나도 남자 친구가 있으면

“호호, 단비야. 이것 봐!”

정아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비에게 다가와 손을 쑥 내밀었다.



“어머, 그게 뭐야? 반지잖아?”

단비는 정아의 손가락에 낀 실반지를 보았다.

“헤헤, 커플링이야. 어제 세철이랑 샀다.”

“호호, 드디어 너희 둘이 반 커플이 됐구나. 축하해.”

단비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정아랑 세철

이가 언젠가부터 사귀더니 드디어 커플링까지 주고받았다고 하였다.

“뭐어, 정아랑 세철이가?”

다른 아이들도 모두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이제 반에서 사귀는 아이들이 세 커플이 되었다.

“아휴, 내 짝은 어디에 있나?”

진우가 한탄하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어댔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성 교제가 유행하였다.

‘나도 남자 친구가 있으면!’

단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단비는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김민재를 속으로 좋아했는데 5학년이 되자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갔다. 가끔 학교 앞이나 아파트 앞 분식점에 가 보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처럼 떡볶이와 김밥, 만두를 사 먹고 있었다. 그것



을 보면 마냥 부러웠다.

정아와 세철이는 날마다 붙어 다녔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자전거를 탈 때에도, 교문을 나설 때에도, ….

“아휴, 그렇게 좋으면 빨리 결혼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도 보고 싶으면 어찌니?”

아이들이 놀리는데도 들은 마치 5학년 5반에 자기들만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굴었다. 정아는, 집에 가서도 문자나 동영상으로 만나고 게임도 같이 한다고 자랑하였다.

어느 날, 세철이는 부루퉁한 얼굴로 등교하였다. 정아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세철이랑 헤어졌니?”

이슬이가 걱정스럽게 정아에게 물었다.

“아니, 엄마한테 들켰어. 내가 밤에 잠도 안자고 세철이랑 문자를 주고받고 게임하는 걸 엄마가 알고는 당장 세철이랑 헤어지랬어. 스마트폰도 키플링도 다 빼앗았고.”

정아는 눈물을 글썽이었다. 그날 이후 정아와 세철이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애처롭게 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양



슬픈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야! 엄마가 반대해도 학교에서는 실컷 볼 수 있잖아. 보기 흉하니까 제발 징징거리지 좀 마.”

유나가 짜증이 난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마음을 잡은 세철이와 달리 정아는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급식 시간에도 새 모이만큼 밥을 먹고, 공부 시간 내내 세철이의 얼굴만 쳐다봤다. 모든 걸 알고 있는 선생님마저 걱정하였다.

“정아야, 네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머니께서 세철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가 너희 둘이 사귀는 걸 인정하시도록 말이다. 알았니?”

“네!”

정아는 모깃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은 정아의 등을 톡톡톡하였다.

선생님은 교단에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폈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성 교제가 남의 일이 아닌 듯하구나. 하지만 내 생각엔 너희는 아직 자라나는 학생이니까 동성 친구, 이성 친구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사귀는 게 더 좋을 듯싶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대뜸 진우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렇지만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걸 어떡해요. 저도 여자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호호! 글썸다, 최진우. 우리 반 여자아이들에게 물어보렴. 여자 아이들에게 짓궂게 구는 너를 ...”

아이들이 진우를 보며 호호 깔깔 웃었다. 단비가 일어섰다.

“선생님, 제가 생각해도 이성 친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계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 볼게요.”

“호호,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통계 대장은 역시 다르구나.”

선생님의 칭찬에 단비는 저절로 어깨가 으쓱했다.

방과 후, 단비는 자기처럼 통계에 관심이 많은 수정이, 한솔이, 형우, 미라도 함께 모듬을 만들어 설문지를 만들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손으로 가린 채 설문지에 답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은 진지하게 보였다.



5교시, 사회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수업이라고 하며 단비에게 앞으로 나와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라고 일렀다.

“이번에 저와 이수정, 김한솔, 최형우, 양미라 다섯 사람은 함께 설문지를 만들고 조사한 내용을 통계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

### 우리 반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 교제

대상 : 5학년 5반 학생, 39명

#### 그림 1. 이성 교제를 해 보았습니까?

- 1) 해 보았거나, 현재 하고 있다. (23명, 59%)
- 2) 해 본 적이 없다. (16명, 41%)

#### 그림 2. 이성 교제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 1) 찬성한다. (32명, 82%)
- 2) 반대한다. (7명, 18%)

#### 그림 3. 이성 교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학교생활이 즐겁다. (13명, 33%)
- 2)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 (8명, 21%)
- 3) 심심하지 않다. (6명, 15%)
- 4)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5명, 13%)
- 5) 함께 공부하거나 운동할 수 있다. (5명, 13%)
- 6) 기타. (2명, 5%)



**그림 4. 이성 교제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1)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된다. (12명, 31%)
- 2) 공부에 방해가 된다. (9명, 23%)
- 3) 돈을 낭비하게 된다. (6명, 15%)
- 4) 다른 친구와 멀어진다. (5명, 13%)
- 5) 자꾸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4명, 10%)
- 6) 기타. (3명, 8%)

**그림 5. 이성 친구를 사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 1) 성격 (12명, 31%)
- 2) 외모 (9명, 23%)
- 3) 취미 (7명, 18%)
- 4) 학업 성적 (5명, 13%)
- 5) 경제력 (4명, 10%)
- 6) 기타 (2명, 5%)

**그림 6. 이성 친구가 생기면 부모님께 밝히겠습니까?**

- 1) 밝히겠다. (27명, 69%)
- 2) 밝히지 않겠다. (12명, 31%)

**그림 7. 밝히겠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서. (14명, 36%)
- 2)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까. (6명, 15%)
- 3) 예의이니까. (5명, 13%)
- 4) 기타. (2명, 5%)

**그림 8.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나 혼자만의 비밀로 하고 싶어서. (9명, 23%)
- 2) 엄마 아빠가 반대할 테니까. (3명, 8%)

겠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너희가 이성 교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 이성 친구를 사귄 때 외모보다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같은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외모보다 성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너희의 생각이 건강하고 긍정적이라는 증거이니까.” 선생님은 칠판에 적힌 통계 자료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단비와 친구들은 그러는 사이 통계 자료를 한 사람씩 나누어 칠판에 도표로 그리기 시작하였다. 막대그래프, 원그래프 등으로 그려 놓으니 아이들의 생각이 한 눈에 속 들어왔다.

“호호, 통계 대장 단비를 중심으로 푹푹 뭉쳐 일을 해 내는 걸 보니, 마치 너희는 우리 반 통계 특공대 같구나.”

“야아! 맞아요, 맞아!”

아이들은 웃으면서 신나게 손뼉을 쳐 주었다.

“호호, 통계 특공대? 그거 참 마음에 드는 걸! 수정아, 한솔아, 미라야, 형우야! 너희가 있으니까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기분이야.”



단비는 생글생글 웃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랑 세철이가 사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요?”

정아가 울먹이며 질문했다.

“아무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지. 그런데 문제는 이성 친구 때문에 네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가족이나 동성 친구들과 멀어지고, 용돈을 낭비하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지.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머니가 걱

정하시는 거지.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어머니의 허락을 얻으려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알았지?”

“네, 선생님!”

정아는 큰 소리로 대답하며 세철이를 바라보았다. 세철이는 알았다는 듯 눈을 찡긐했다.

‘부럽다. 나는 언제 남자 친구가 생기려나.’

그런 생각을 하며 받은 메일 목록을 살피던 단비는 하마터면 소

#### 보고 싶은 단비아

너무 오랜 만이지? 이곳 밴쿠버에 와서 그동안 나도 바빴단다. 아무리 서울에서 영어를 배워도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여기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영어랑 씨름을 하고, 낯선 나라에 적응하려다보니 정신이 없었단다. 그럴 때마다 4학년 내 생일파티 때 네가 준 토끼 인형을 안고 놀았단다.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친구 같아서. 고마워. 이제 자주 메일 보낼게.

민재가

리를 지를 뻔했다.

“보고 싶은 단비야” “민재가”

단비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였다.

“으흐흐, 나도 남자 친구가 있다!”

단비는 큰 소리로 외치며 민재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하였다.



## 책 읽기 싫어

교문 앞에 ‘독서의 계절’이라는 막이 걸린 지 여러 날이 되었다. 학교 벽보에도 ‘독서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와 함께 추천 도서 목록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도 반 아이들 대부분은 그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랑 뛰어놀거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느라 겨를이 없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얼굴로 신문을 스크랩한 기사를 컴퓨터 화면에 띄웠다.

“너희에게 보여 주려고 신문 기사를 스캔해서 확대한 것이다.

이 그래프를 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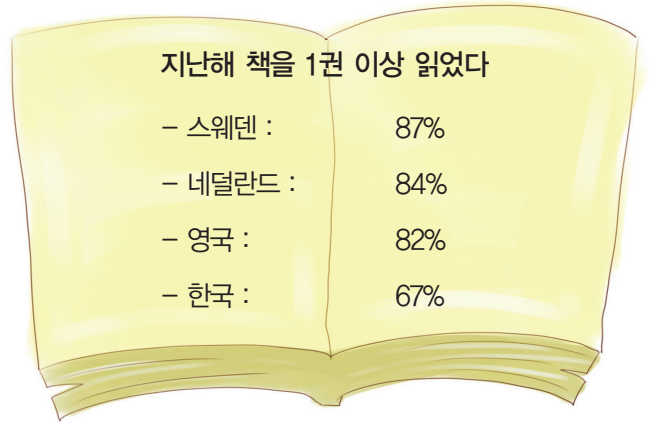
화면에 자료가 떴다.

“학원 다니라, 스마트폰 하라  
한국 초중고생 독서량 역대  
최저”

“우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책 많이 읽는데 ……”

한솔이가 고개를 가우퐁가우퐁하였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저건 나라별로 평  
균을 낸 거란다. 이 신문 기  
사를 보면 한 초등학교 아이  
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책  
을 읽으려고 하면 친구들이  
'재는 혼자 재수 없게 책을  
읽는다' 며 핀잔을 주기 때문  
에 왕따가 될까 봐 책 읽기  
를 포기했다고 나왔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자료 : 한국출판연구소



들의 독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한다.”

“선생님, 요즘 스마트폰을 산 뒤로 예전보다 책을 안 읽게 돼요. 책을 읽어도 자꾸만 건성건성 책장을 넘기고요.”

혜리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영상 매체를 가까이하면 책을 읽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게 여겨질 게다. 게다가 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는 바람에 책을 읽고 난 후 요점을 말해 보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자, 다음 글을 보렴.”

“선생님,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해요?”

### 2009년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한국 학생들의 성취도)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 34개 회원국의 만 15세 학생

조사 결과 : 한국 학생들은

- 암기력과 현실 응용력이 뛰어나다.
- 독서 통제력[목적대로 독서 과정을 따라가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약하다.
- 독서한 만큼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 읽기 능력이 다른 국가의 학생에 비해 낮다.



민규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참 좋은 질문이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독서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선생님은 말씀을 마치고는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였다.



### OECD에서 권하는 효율적인 독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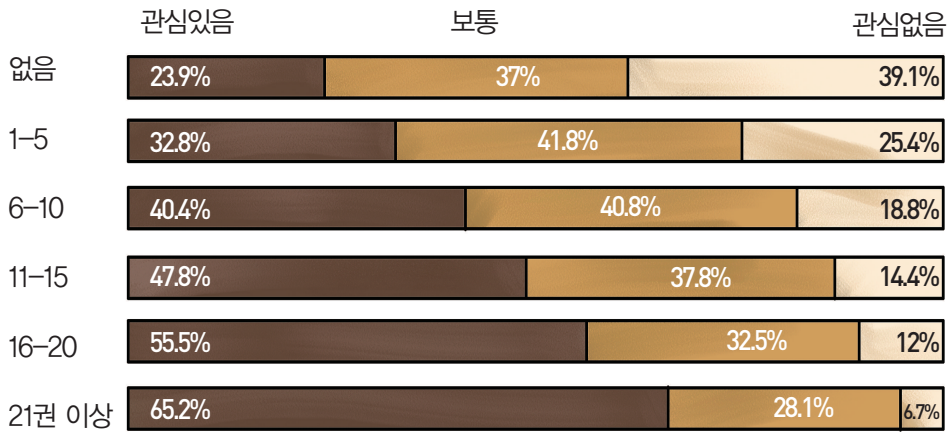
1.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책을 읽으면서 읽고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책을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3.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정리한다.
4. 책의 줄거리와 요점을 간추리고 읽은 내용을 기억하였는지 확인한다.
5.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추가 정보를 찾아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독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는 구나. 자녀에게 책 읽어 주기, 또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 가기가 습관처럼 몸에 배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도 학교 도서실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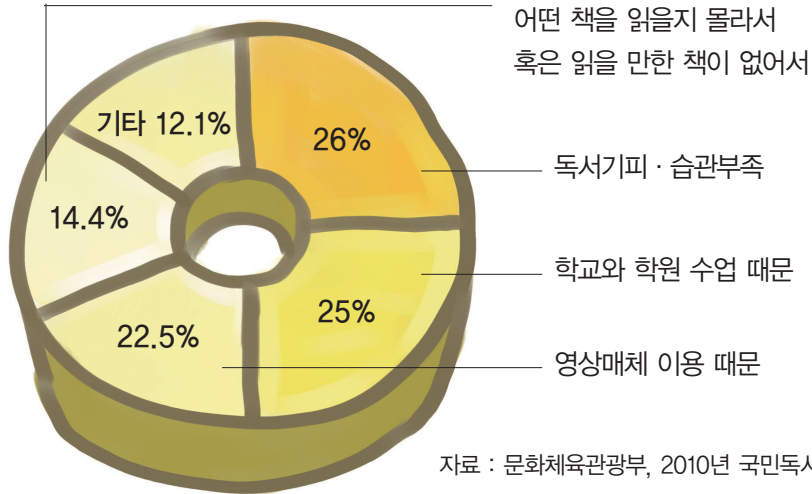
구립 도서관, 시립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으니 주말이나 방과 후 엄마와 함께 도서관 나들이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부모가 독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의 독서량도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부모가 독서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녀 독서량 증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독서실태

## 독서 장애 요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독서실태

## 청소년이 사용하는 매체

- 조사 기간 :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 조사 대상 : 전국 학생 6,514명(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료 : 여성가족부



2) 독서 인구 비율

“선생님, 저희 엄마는 자꾸만 학습 만화만 읽으라고 해요. 저는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읽고 싶은데요.”

정아가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습 만화는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독서도 마찬가지이다. 학습 만화만 읽다 보면 이해력이나 상상력, 어휘력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골고루 읽는 게 올바른 독서 습관이다.”

선생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선생님은 갑자기 빙그레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상품권처럼 생긴 종이를 꺼내어 아이들 앞에 내보였다.

“자, 이건 너희 중 누군가에게 주려고 마련한 상품권이다.”

“네에? 무슨 상품권이에요?”

아이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번 독서 주간에 우리 반에서 독후감이나 독후화로 상을 받는 사람, 또는 독서 퀴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사람에게 주려고 마련한 숙박권이다.”

선생님은 입가에 웃음을 매단 채 말했다.

“우와, 어디 숙박권이예요? 제주도나 경주에 있는 호텔인가요?”

한솔이가 큰 소리로 물었다.

“호호호! 그런 데보다 아주 넓고 훨씬 고급스러운 곳! 아주아주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는 곳.”

“선생님,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럼! 이게 그곳 숙박권이다.”

“선생님, 도대체 그곳이 어디예요?”

“해마루 아파트 502동 707호! 우리 집이다.”

“우와, 정말이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뽑힌 듯 신 나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숙박권! 아이들이 하도 책을 안 읽자 선생님은 숨겨 둔 무기를 꺼내들었다.

“야아, 생각만 해도 멋지다!”

“빨리 도서관에 가서 추천 도서를 빌려야지!”

“난 엄마한테 인터넷 서점에서 사 달라고 할 테야!”

선생님 댁에서 함께 밥도 해 먹고 잠도 잘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마음이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런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그걸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

‘나도 책을 열심히 읽고 꼭 상을 타야지!’

단비도 벌써부터 코가 벌름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신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단비는 코를 벌름거렸다.

다음 날 아침, 교실 풍경이 완전히 판판으로 바뀌었다. 너도 나도 교실에 들어오기 무섭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빨간 바구니에 넣고 책을 읽었다. 어제까지도 단 일 초라도 더 가지고 놀려고 안달이었는데.

“아이고, 이거 큰 일 나겠다. 이러다가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상을 받으면 어찌지? 선생님 집에서 다 잘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아이들 모습을 보며 엄살을 부렸다.

반 아이들은 독서 주간에 모두 세 가지를 해야 했다. 책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쓰고 독후화를 그려야 했다. 거기에다 5학년들이 읽어야 할 책 3권을 읽고 독서 퀴즈 대회에도 나아가야 하였다.

“휴우,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니.”

아이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다가도 독서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선생님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반짝 차리곤 하였다.

단비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독후감을 쓴 다음,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책 읽는 도깨비>를 읽고 독후화를 그렸다. 그리고 퀴즈 대회의 대상 도서인 <어린 임금의 눈물> <초정리 편지> <안네의 일기>를 열심히 읽었다.

독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 5학년 5반 아이들은 책을 달달 외웠는지 나오는 문제들을 척척 맞혔다. 다른 반 학생들은 단비네 반을 따라오지 못하였다.

독후감 대회에서는 5학년 5반 이수정이 대상을, 김미혜가 동상을 받았다. 독후화 대회에서서는 양미라가 은상을, 최수혁이 장려상을 받았다. 독서 퀴즈 대회에서는 5학년 5반이 단체상을 받았다.

“와와! 와아!”



5학년 5반 아이들은 강당이 떠나갈 듯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였다.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와서도 흥에 겨워 재깁재깁 종알종알 떠들었다.

“선생님,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단체상을 받았으니 서른아홉명 모두가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희 모두 다 선생님 집에 가도 되죠? 그렇지요?”

한솔이가 짓궂은 얼굴로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한솔이 말이 맞아요! 우리 모두 다 가고 싶어요!”

아이들 모두가 시끌시끌 소리를 질렀다.

“호호,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난 너희가 그렇게 잘 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 .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번 토요일 모두 다 선생님 집으로 오렴. 이불도 부족하고 그릇도 부족하지만 우리 다 함께 하룻밤 자도록 하자꾸나. 그 대신 선생님이랑 꼭 약속을 하자. 앞으로 지금처럼 책을 많이 읽겠다고 말이다.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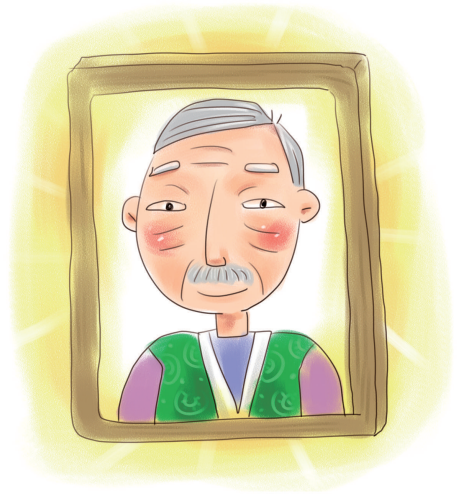
“네, 선생님!”

아이들은 입을 모아 신나는 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아빠한테 그날 선생님과 아이들이 먹을 빵을 만들어 달래야지!’

## 콩치야, 넌 어디서 왔니

단비는 쟁강쟁강 달각달각 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인데 엄마가 그릇들을 닦고 있었다. 눈곱을 비비는 단비에게 엄마가 “오늘 할아버지 제삿날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아빠는 교자상을 닦고, 할아버지 사진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의 할아버지는 생전의 모습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단비 시집가는 거 봐야지!”

할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단비가 시집은

커녕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피! 할아버지 미워!’

단비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할아버지를 보자 콧잔등이 시큰해졌다.

단비가 학교에 다녀오니 보은 할머니도 서초동 고모네 식구들도 와 있었다. 아버지 형제들까지 모이니 집 안이 명절 때처럼 북적북적하였다.

“단비 누나. 나랑 놀자, 응?”

사촌동생 몽이가 단비 손을 잡아끌었다. 부엌에서는 엄마랑 고모가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다. 할머니는 제사상에 올려놓을 과일들을 깨끗하게 닦고, 그 옆에서 아빠는 창칼로 밤을 하얗게 찢고.

날이 저물고 밖이 캄캄해지자 아빠는 거실 한쪽에 상을 앉혔다.

“예전에는 밤 12시에 제사를 지냈는데 요즈음은 오가는 친척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저녁 무렵에 지낸다.”

아빠가 상 위에 제물들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며 말했다.

엄마가 생선 접시를 쟁반에 받쳐 들고 와 아빠 앞에 놓았다. 큼



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긴 생선이었다. 그것을 아빠는 제사상에 올렸다.

“애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던 민어구나. 요즘 민어값이 꽤 비쌀 텐데.”

할머니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민어는

하도 비싸서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민어를 샀거든요. 요즈음 명태도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잡아온 걸 팔더라고요.”

엄마가 말했다.

“아니! 그럼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민어란 말이냐? 조상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인데. 그런 걸 올리다니!”

할머니는 혀를 끝끝 찼다. 엄마는 죄를 지은 듯 말을 할 듯 할 듯, 우물쭈물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머니, 이젠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은 별로 없어요.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는 노르웨이에서 사 오고, 주꾸미나 오징어는 중국과 칠레에서 들여와요. 조기도 중국산이 많고요. 웬만한 생선들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요.”

아빠가 약간 겸연쩍은 듯이 말을 거들었다.

“고사리, 도라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생선까지 먼 나라에서 들여온다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바닷고기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할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요즈음 우리나라의 바닷물이 차가워져서 안 잡히는 물

고기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생선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그런 걸 알고 수입한 생선을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은 것이라고 속여서 파는 상인들이 많대요. 비싼 돈 주고 가짜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수입한 것을 사는 게 낫지요. 야속하고 서운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

할머니는 또 혀를 끝끝 찼다. 엄마 아빠도 고모도 할머니 눈치를 보았다. 분위기가 썰렁해졌고, 엄마는 죄인처럼 할머니 눈치를 살폈다.

단비는 잼싸게 방으로 달려갔다.

‘통계 대장 김단비, 이럴 때 할머니께서 이해하실 만한 통계 자료를 찾아서 보여 드리면 되잖아. 말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단비는 검색창에 ‘수입 수산물’ 이라고 적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눈앞에 떴다. 단비는 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가 발표한 자료들이 마음에 들었다. 수협중앙회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2012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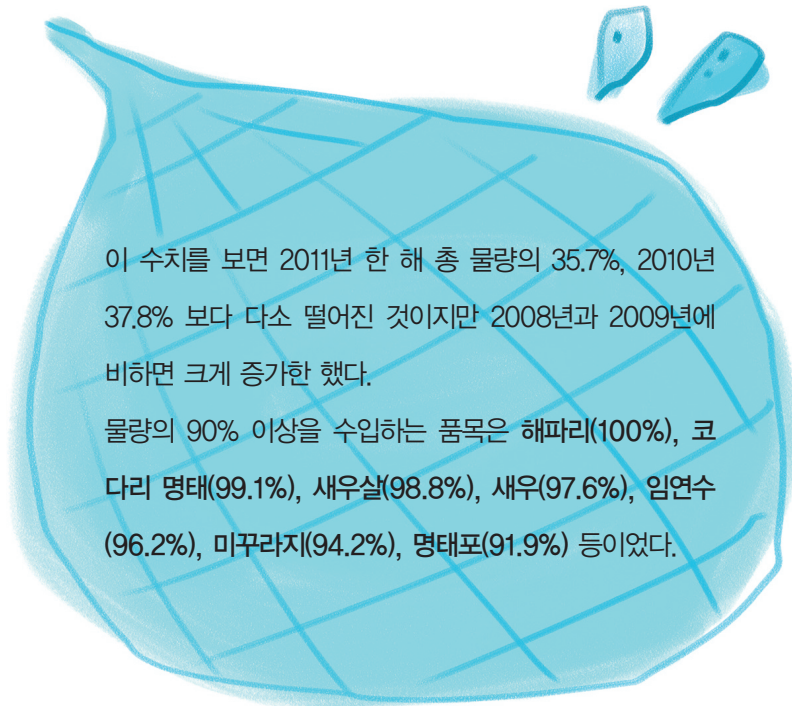
월에 34.4%였다고 하였다.

‘그래!’

단비는 자료를 프린트하여 들고, 속보를 전하는 아나운서처럼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보세요. 우리가 먹는 생선 대부분이 수입해 온 거래요. 제가 좋아하는 새우도 거의 다 그리고 미꾸라지도 거의 다 수입한 거래요. 요기 보세요.”

단비는 “새우(97.6%), 미꾸라지(94.2%)”라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짚었다.

“무어? 미꾸라지도 그렇단 말이나? 이 할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래기를 넣고 끓인 추어탕인데. 내가 여태 수입한 미꾸라지로 끓인 추어탕을 먹었던 말이지?”

할머니는 화들짝 놀랐다. 할머니는 그래도 믿기지 않는지 돋보기로 단비가 내민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에이, 쫓쫓! 조상님이라고 별수 있나. 여보 영감! 요즘엔 국제화 시대라고 남의 나라에서 난 것도 먹어야 한다는구려. 영감도 별수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나는 음식을 잡춰야겠구려.”

할머니는, 혼잣말인지 들으라는 말인지, 중얼중얼하였다.

“호호호! 우리 엄마 농담도 잘 하시네!”

고모가 웃으며 은근슬쩍 말 머리를 돌렸다.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내고 밥상에 둘러앉았다. 엄마는 조심조심 할머니 앞에 생선을 발라 드렸다. 할머니는 입맛을 다시고 싱긋 웃었다.

“어머야! 맛이 좋구나. 국내산이다 외국산이다 타령할 일이 아



“넌 듯하구나. 내 괜히 까탈을 부렸나.”

“정말요?”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다.

수입 생선 소동이 있고 나서 단비는 특히  
하면 밥상머리에서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오징어는 어디서 온 거야?”

“애가 정말! 이건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서 잡은 거래.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어  
획량이 툭 떨어진 탓에 오징어값이 금  
값이다. 금값!”

엄마는 비싸게 사 온 국내산 오징어라는 걸 강조하였다.

“헤헤, 어쩐지 맛이 있더라.”

고추장으로 버무리려 볶은 오징어, 단비는 그 매콤한 맛에 홀려  
정신없이 밥에 비벼 먹었다.

“애고, 살찌면 어찌려고.”

단비는 이런 생선 저런 생선을 볼 때마다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  
였다. 학교 급식 시간에 콩치구이를 보고 중얼거렸다.



“콩치야, 넌 어디서 왔니? 러시아, 아니면 중국? 그도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왔니?”

“너 뭘 그렇게 중얼거리니?”

옆에 있던 형우가 물었다.

“응, 콩치한테 물은 거야. 어느 나라 바다에서 왔는지 궁금해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부분이 수입한 것이래서.”

“아이고, 단비는 못 말려. 이젠 콩치한테도 말을 거니? 난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데.”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곁에서 본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다.

“호호, 단비야! 어떻게 알았니? 이따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마.”

수업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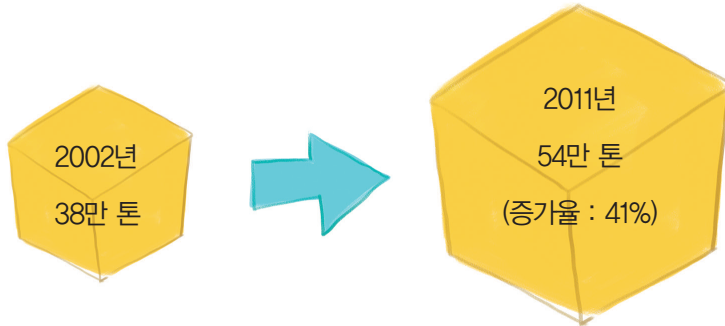
“점심 맛있게들 먹었지? 콩치도 맛있게 먹었지? 요즈음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의 약 삼십 퍼센트가 수입한 것이란다. 그 비율도 차츰 증가하고 있고. 여기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자.”

선생님은 칠판에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를 적었다.

## 수산물 수입량과 잡은 곳, 2002~2011

생선 10개 품목을 수입한 양

(갈치, 고등어, 꽁치, 낙지, 명태, 아귀, 오징어, 조기, 주꾸미, 홍어)



냉동 오징어는 6500톤에서 4만 5700톤으로 늘었다. 주꾸미는 2.3배로, 꽁치는 2배로 늘었다. 제사상에 많이 쓰이는 민어와 돔의 최대 수입처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바뀌었다. 민어는 기니와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 산이 4272톤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홍어 최대 수입국도 2002년 칠레(40%)에서 아르헨티나(32%)로 바뀌었다.

자료 : 관세청

“으악, 선생님. 그럼 지금 저희가 먹은 꽁치도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진우가 큰 소리로 물었다.

“밥을 먹기 전에 단비가 꽁치한테 너 어디서 왔냐고 물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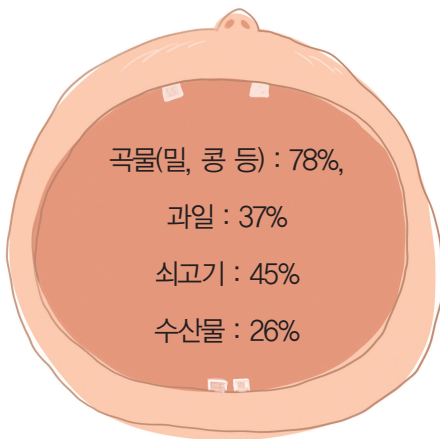


콩치가 대답하지 않더구나.  
 호호호! 내가 원산지를 조사  
 하지 않았지만 그럴 확률이  
 높겠지. 요즈음 이런 생선 저  
 런 생선을 외국에서 수입하  
 고 있으니까. 노르웨이에서  
 잡은 고등어를 많이 들여오  
 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홍

어도 아르헨티나에서 온 거래!”

### 국내 소비량에서 수입 농수산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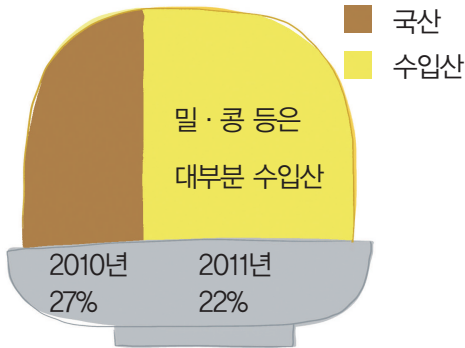


#### 안전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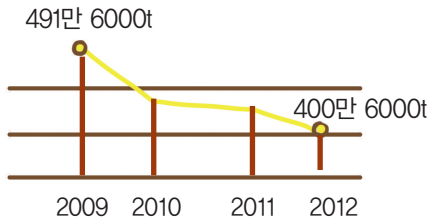
먹어도 몸에 안전한 먹을거리.

-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믿을 수 있다.
- 신선하다.
-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 쌀 생산량 감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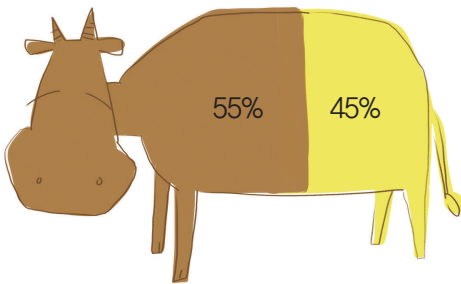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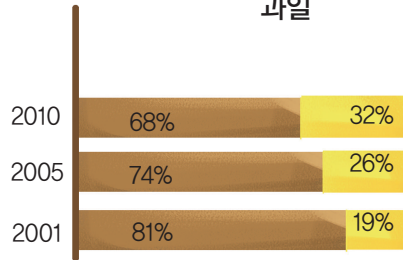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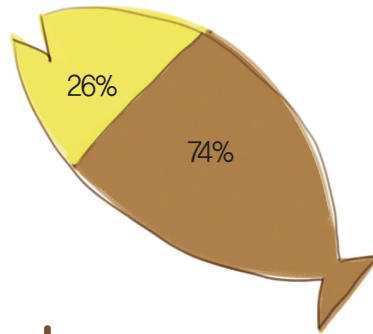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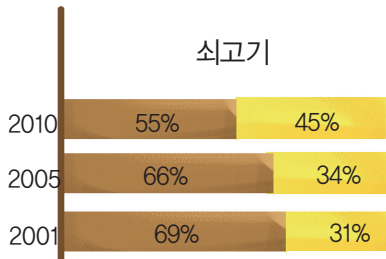
###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식품 원산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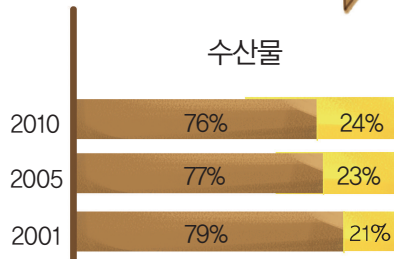
### 과일



### 쇠고기



### 수산물



자료 : 00마트

“내가 좋아하는 아귀찜도 수입한 아귀로 만든 건가 봐.”

아이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었다. 선생님은 칠판에 통계 자료를 요약하여 적었다.

“얘들아! 요즈음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의 대부분이 수입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에는 좋은 먹을거리인지 아닌지를 국내산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는다. 국내산이건 수입한 것이건, 안전 식품이 좋은 먹을거리이다. 정부는 모든 먹을거리를 검사하여 안전 식품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학교에서도 급식을 맡은 분들도 안전 식품인지 아닌지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한다. 너희가 먹은 콩치도 안전 식품이다. 그러니 안심하렴. 알았지?”

“네!”

아이들은 입을 모아 큰소리로 대답했다.

## 아침밥 먹기 싫어

“밥 먹기 싫단 말이야!”

단비는 아침마다 징징거렸다.

“너 아침밥 안 먹고 가면 점심 먹을 때까지 배가 고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배가 든든해야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법이거든.”

단비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간신히 세수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면 엄마가 어김없이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성화를 댔다.

엄마는 과학자나 의학자도 아니면서 종종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를 내세우며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단비는 아침마다 학교에 무얼  
입고 갈까 고민하느라 밥 먹을 시간을 놓치기 일쑤였다. 입 안이  
깔깔하여 도무지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밥술을  
뜨는 등 마는 등 하고 일어날 때가 허다했다.

단비는 오늘도 몇 술 뜨지 않고 현관을 열고 나섰다.

“아휴, 저 못 말리는 고집쟁이!”

엄마의 역정이 단비의 털미에 달라붙었다.

‘치! 내가 뭐 꼴돼지인가. 일어나자마자 꾸역꾸역 밥을 먹게.’

단비는 입을 쭉 내밀고 학교로 갔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오늘따라 1교시가 지나자마자 배에서 꼬르  
륵 소리가 났다. 엄마가 차려 놓은 달걀말이 반찬이 눈앞에 아른  
거리고 입 안에 군침이 돌았다.

‘에이, 몇 숟가락 더 먹고 올 걸 그랬나.’

단비는 은근히 후회마저 들었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하자 수업 시간 내내 먹는 것만 떠올랐  
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단비의 등을 쿡 찔렀다.

“야, 김단비, 선생님이 질문하시잖아.”



“뭘어?”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생님이 단비를 보고 있었다.

“김단비,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깊이 하느라 불러도 못 듣니?”

선생님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저, 그, 그게 배가 고피 나머지 자꾸만 먹을 게 눈 앞에서 아른거려서요. 아침밥을 안 먹고 왔거든요.”

“우하하하!”

“까르르!”

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도 그런데 ……”

“선생님 저도 그래요.”

몇몇 아이들은 단비를 보며 맞장구를 쳤다.

선생님은 어이가 없는지 씩 웃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시 까르르 하하하 웃어 댔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선생님은 왼손 검지를



입에 댔다.

“쉬잇!”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얘들아, 한번 굶은 밥은 돌이켜 먹을 수 없다. 아침밥을 꼭 먹어라. 아침밥을 먹으면 뇌 기능이 활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가 잘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함께 섭취한 섬유질이 몸 안의 중금속과 함께 배출된다고 한다. 아침밥을 거르면 점심 저녁 때 과식하여 살이 찌기도 하고,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장의 점막이 상하기도 한다고 한다.”

“정말요?”

단비의 눈이 반짝 떠졌다.

“그렇잖아도 5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자꾸 살이 통통하게 올라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단비는 선생님의 입을 쳐다보았다.

“어떡하지. 나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밥을 굶었는데. 굶었는데 더 살이 찼다니. 말도 안 돼!”

유정이는 깜짝 놀란 시늉을 하였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그런 다음 단비도 보고, 수정이 한솔이 형우 미라도 보고.

“호호, 우리 반 통계 특공대가 또 출동을 해야겠구나. 아침 밥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조사를 해 보련?”

“저희가요?”

단비와 수정이, 한솔이, 형우, 미라는 한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너희 특공대가 이번에도 통계를 내 보렴.”

“네, 알겠습니다!”

단비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군인처럼 거수경례를 했다.

점심시간, 꿀맛 같은 밥을 먹고, 통계 특공대는 운동장 한쪽에 모였다.

“이번에는 우리 반뿐 아니라 우리 학교 5학년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 어떨까?”



단비가 통계 특공대원들을 둘러보며 의견을 말했다.

“어휴! 5학년 전체를? 거의 이백 명이 되잖아. 그렇게 많은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받으려면 ...?”

한솔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건 염려 마. 내가 각 반 반장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부탁할게. 이래 봐도 나 5학년에선 좀 인기가 있잖아.”

수정이가 웃으며 차례로 세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그럼, 우리 각 반마다 설문지를 돌리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설문 내용이야.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자.”

“그래, 형우 말이 맞아.”

“우선, 아침을 먹는 학생이 몇인지, 안 먹는 학생이 몇인지 조사해야 해.”

“아침밥을 먹었을 때 좋은 점, 안 먹었을 때 나쁜 점도.”

특공대원들은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특공대원들은 여러 차례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아서 저마다 자신이 있었다.

“그럼, 이 아이디어들을 내가 설문지로 만들어서 가져올게.”

단비가 특공대원들에게 말했다.

“역시 통계 대장은 다르다니까.”

미라가 마치 어른처럼 말했다.

단비는 컴퓨터 앞에 앉아 특공대원들이 써 준 메모지를 보며 설문지를 만들었다. 넉넉하게 200장을 프린트해서 다음 날 학교에 가지고 갔다. 담임 선생님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었다.

통계 특공대원들은 서로 약속한 대로 각자가 맡은 반을 찾아가



설문조사에 답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5학년 1반부터 5반의 반장들도 ‘아침밥’이라는 주제가 익숙한지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통계 특공대원들은 점심을 허겁지겁 서둘러 먹었다.

“설문지를 걷으러 가자.”

단비와 통계 특공대원들은 5학년 교실을 두루 돌아다녔다. 5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받는 일은 아이들이 잘 협조해 주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어려웠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정리하여 그림이나 표를 만드는 일이 아주 어려웠다. 설문 대상자가 많아서 통계 특공대원들 여러 날 끙끙대었다.

통계 특공대원들은 분석한 자료를 선생님께 보여 드렸다. 선생님은 환희 웃으며 칭찬해 주었다.

“이걸 우리 학교 소식지 셋별에 신자. 우리 학교 5학년뿐 아니라 전교 어린이 모두가 읽고 스스로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자.”

“우와, 그럼 저희 이름도 셋별에 실리는 거예요?”

형우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무렴, 당연하지. 이것은 너희가 남보다 먼저 발표하였다고 증명하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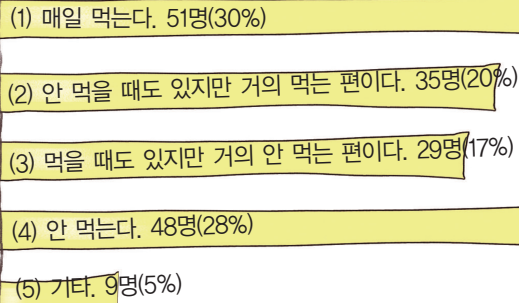
## 아침 식사와 건강의 관계

아침밥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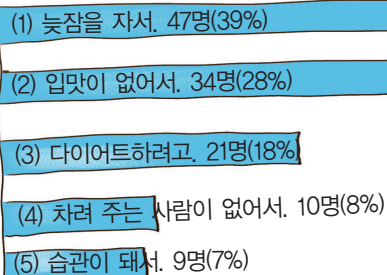
조사 대상 : 셋별 초등학교 5학년 194명

응답자 : 172명(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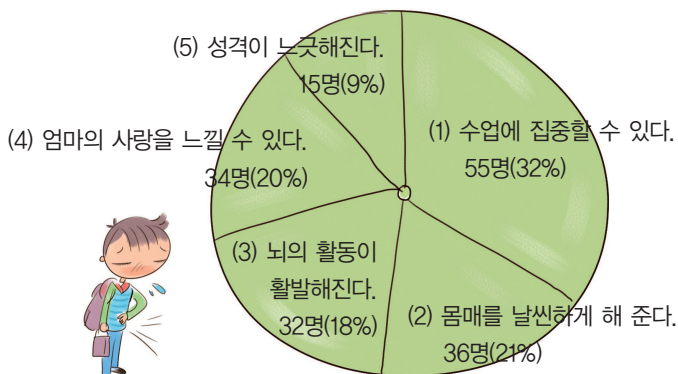
### 1. 아침밥을 매일 먹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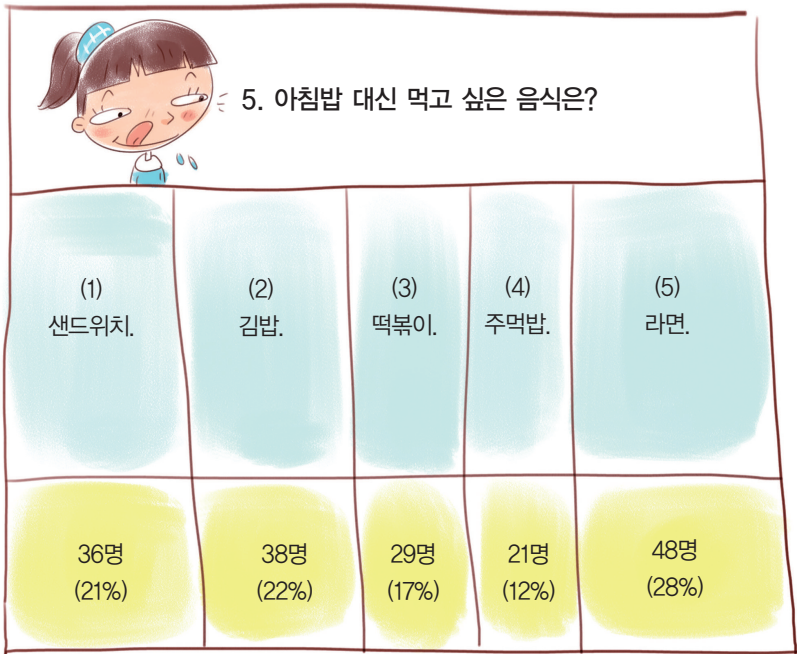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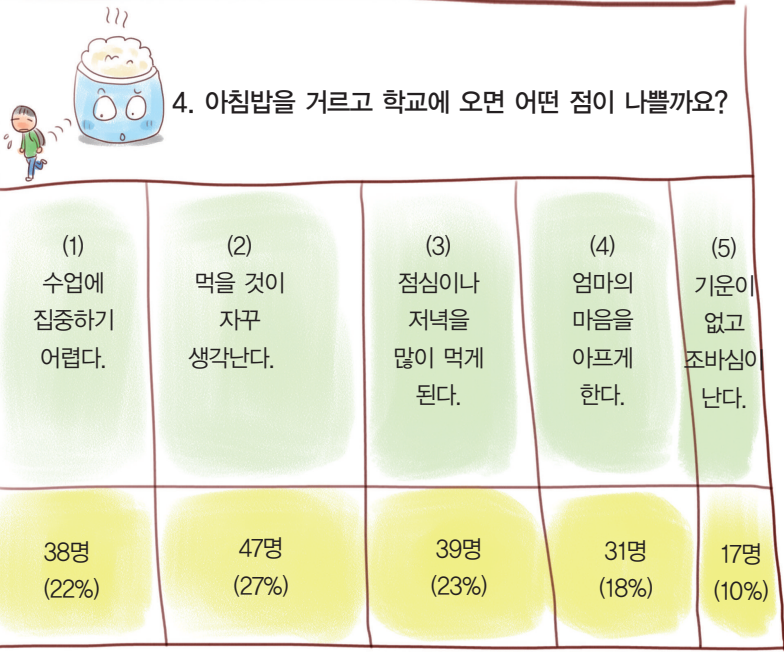


### 2. 아침밥을 매일 먹는 사람을 빼고,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3.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희 이름이 정말 나오는 거죠?”

특공대원들은 폴쩍폴쩍 뛰며 신 난다고 소리쳤다.

“통계 자료들을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 출처를 밝혔나. 박사님이 너희가 발표한 자료를 사용할 때에도 너희 이름과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너희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는 믿지 않잖니?”

“그렇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몰라 눈을 끄벅끄벅하였다.

“야—! 우리 이름이, 우리가 발표한 자료가 셋별에 실린데. 영광이지, 영광!”

팔짝팔짝 뛰는 단비의 입이 벌쭉 벌어졌다. 특공대원들의 입이 벌쭉 벌어졌다.

“하하하! 우리 5학년 5반에서 통계학 박사님들이 나오시겠구나!”

## 내 고민은 말이야 ...

교실에 들어선 헤리는 단비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본 체 만 체 하였다.

‘어어!’

단비의 입이 벌어졌다. 단비는 눈을 깜빡깜빡하며 헤리를 보았다.

‘어어! 재가, 왜?’

단비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헤리는 M 기획사의 연습생이 된 후로는 방과 후에 같이 놀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는 단비와 단짝이 되어 같이 수다도 떨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친하게 지냈다.

그날부터 헤리는 단비에게는 눈길조차 안 주고 보란 듯 이슬이하고만 붙어 다녔다. 단비는 단짝 친구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다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꿀맛이던 밥맛도 쓴맛이었다.



어느 날 단비는 문득 생각하였다.

‘그래, 이건 괜한 시간 낭비, 감정의 낭비야. 나 혼자 마음 풀일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헤리에게 직접 물어볼 테야.’  
집에 돌아온 단비는 헤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헤리에게

헤리야, 왜 요즈음 나한테 쌀쌀하게 구니? 내가 뭐 잘못된 거라도 있니? 너무 궁금하고 답답하구나.  
제발 그 이유라도 알려 주렴.  
단비가

단비는 혜리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어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단비는 조바심이 났다. 혜리에게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배신감도 들고, 약도 오르고 … 온 몸의 힘이 쭉 빠졌다.

다음 날, 단비는 혜리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졌다.

“이혜리, 너 내 문자 못 받았니? 왜 답장을 안 보내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흥, 답장을 보내든 안 보내든 그건 내 맘 아니니?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냈을 뿐이야.”

혜리는 쌀쌀맞게 말했다.



“뭐? 너, 왜 그러니? 응!”

단비는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

“그 이유는 내가 더 잘 알 텐데. 안 그러니? 너, 내가 똥똥하다고 내 뒤에서 내 흥을 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흥!”

혜리는 사납게 대들었다.

단비는 얼마 전의 일이 확 떠올랐다. 이슬이하고 집에 같이 갈 때에 “혜리가 다니는 기획사에는 혜리보다 몸이 빼빼 마른 말라깽 이들이 많대. 혜리도 가수가 되려면 살을 더 빼야 하나 봐. 아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너무 안 됐어.” 그 말을. 그런데 그 말을 이슬이가 혜리에게 똥똥하다는 뜻으로 잘못 전한 듯했다.

‘어쩐!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걸 …….’

단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자기의 말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슬이. 안타까웠다.

단비는 더는 말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혜리가 생각할수록 서운하고 야속했다.

그날 이후 단비는 혜리와 말을 하지 않았다. 혜리와 사이가 나빠지자 단비는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었다. 마치 어두운 먹구름이 마음에 가득 드리운 것처럼 슬프고 기운이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메일

을 연 단비는 화들짝 놀랐다. 낮익은 ‘보라공주’ 라는 아이디가 눈에 보였다.

‘앗, 헤리잖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다. 그러자 정말로 헤리가 보낸 메일이 와 있었다.

단비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너한테 메일을 보내니까 기분이 이상해. 학교에서 너랑 말을 안 하는 동안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제 이슬이가 자기가 말을 잘못 전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너에게 너무 얼마나 미안하던지. 미안해.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하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똥똥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어. 사실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살이 찌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떤 일인지 몰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속상하던 참이었거든. 단비야, 오해해서 미안해.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헤리가.

‘으흐흐, 그러면 그렇지!’

단비는 마치 한 순간에 먹구름이 가신 듯 저절로 실실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학교에 간 단비는 헤리를 보며 활짝 웃었다. 헤리도 언제나 그랬냐는 듯 반갑게 웃어 주었다. 단비는 예전처럼 헤리와 수다도 떨며 사이좋게 지냈다.

단비는 문득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올랐다.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무언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단비는 반 친구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단비는 점심시간에 통계 특공대원들을 붙잡고 물었다.

“얘들아, 우리 재미난 통계 한번 내 볼래? 우리 반 아이들의 고민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떠니, 응?”

“아휴, 김단비 또 발동이 걸리셨구먼.”

“좋아, 이번 기회에 친구들 속마음도 알아 볼 겸, 재미있겠다.”

“호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니까 친구들의 솔직한 마음을 엿볼 수 있겠지?”

“이번에는 설문 조사보다는 커튼 뒤에다 메모판을 놓고는 항목별로 스티커를 붙이게 하면 어떨까?”

“우와, 그거 좋겠다. 비밀 투표하는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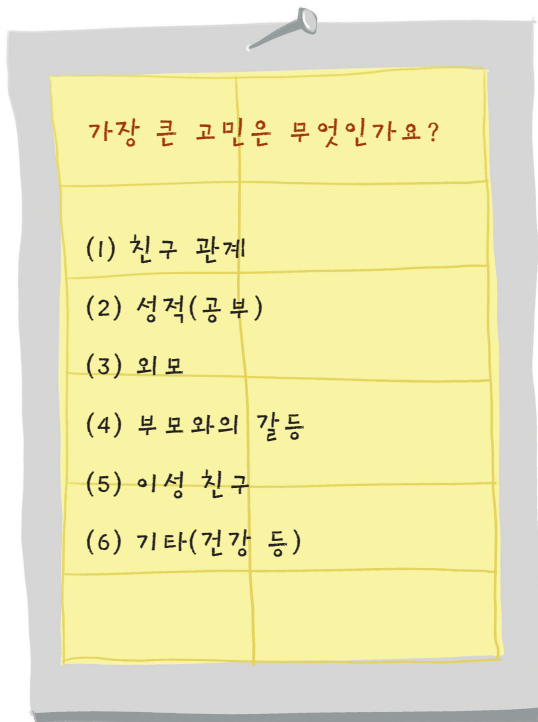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들뜬 얼굴로 말했다.

단비는 통계 특공대원들과 메모판을 구해다 설문 내용이 담긴

종이를 붙이고, 그 옆에는 작은 스티커를 놓아두었다.

5학년,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우리 5학년 5반 친구들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기회로 해요. 다음에 적은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항목 2개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뭘, 커튼 뒤에서 투표를 하라고?”



“헤헤, 재미있다!”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너도나도 커튼 뒤에 숨어서 설문지 위에 스티커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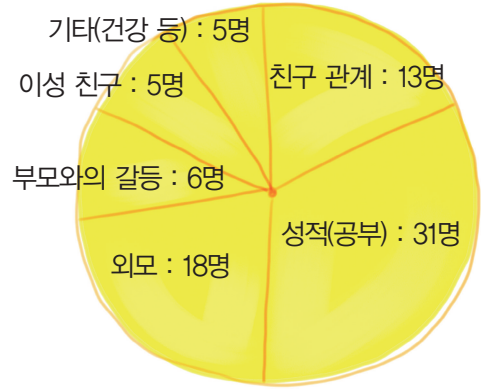
“짜잔!”

메모판을 든 단비가 교탁 앞으로 나가자 선생님은 물론 아이들도 궁금



한지 고개를 숙 내밀고 바라보았다. 5학년 5반 39명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들어나는 순간이었다. 단비와 통계 특공대원들이 얼른 스티커의 숫자를 세어서 항목별로 그 옆에 수치를 썼다. 스티커를 세보지 않아도 아이들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아이들의 고민 일 순위는 다름 아닌 성적이었다.

나의 가장 큰 고민



“어쩐지, 이걸 보니 너희가 얼마나 성적에 얽매어 있는지 알겠구나. 그래, 좋다! 오늘만큼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음.” 선생님은 그래프를 보며 안타까운 얼굴로 아이들에게 선심을 썼다.

“아아, 정말이지요?”

“신난다, 신나!”

숙제가 없다는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책상을 두드리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니 의외로 외모와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킁킁, 나랑 헤리처럼 다른 아이들도 그렇구나.’

단비는 설문 결과를 보며 혼자 속으로 웃었다.

“그래, 통계로 또래 친구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니?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이 통계를 보고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니? 이 세상에 해결 못할 고민은 없단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상의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고민을 해결할 답을 얻기도 하거든. 오늘 단비와 통계 특공대원들 덕분에 너희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선생님은 단비와 친구들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하였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으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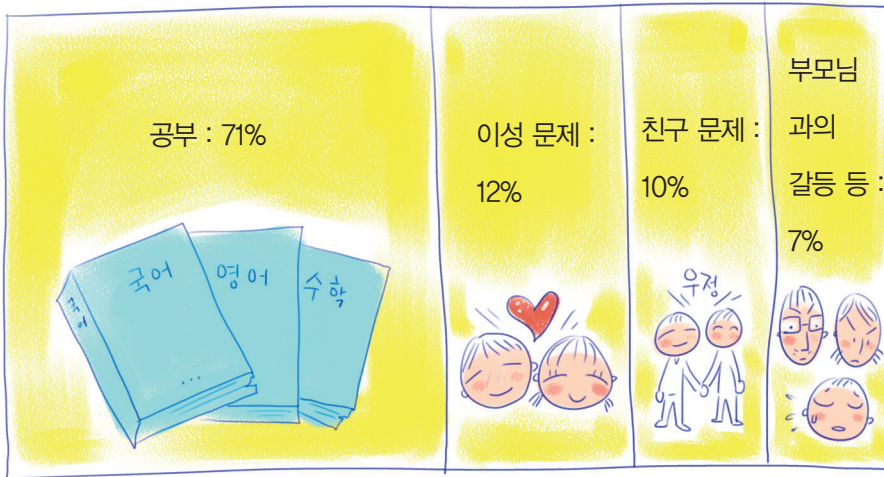
아이들도 통계 특공대원들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헤헤!”

단비는 통계 특공대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 어린이들의 고민

1. 조사 대상 : 초등학교생 네티즌 3,311명
2. 조사 방법 : 인터넷 설문 조사
3. 설문 "무엇을 가장 고민합니까?"
4. 응답



자료 : 포털사이트 네이트닷컴(www.nate.com)



## 기부 천사, 호떡 장수 아저씨

“얘들아, 얘들아. 저기 저 호떡 장수 아저씨, 어제 텔레비전에 나왔다!”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같이 가던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아저씨가 무슨 일로?”

아이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저 아저씨가 호떡을 팔아 번 돈 가운데 십 퍼센트를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시는 천사래. 방송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며 취재했대.”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데 호떡 한 개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기부를 하시지? 돈 잘 버는 연예인이나 사업가라면 모를까?”

승철이가 고개를 가우푹하고 물었다.

“단 돈 몇천 원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 줄 수도 있는데. 꼭 돈 많은 사람만 기부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방송 광고에 나왔어.”

다영이가 말했다.

“그래, 다영이 말이 맞아. 얼마 전 텔레비전 다큐 프로에서 봤는데 몇천 원이면 영양실조에 걸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사 줄 수 있대. 염소를 잘 키워서 갓 짠 신선한 젖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단비는 언젠가 본 텔레비전 프로를 떠올리며 말했다.

“맞아, 내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저체온증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위해 털모자를 떠서 보내 주는 일을 하고 계셔.”

이슬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렇구나.”

아이들은 새삼 고개를 끄떡이며 놀라워하였다.

“얘들아, 우리 그런 뜻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저 아저씨를 위해  
호떡 한 개씩 사 먹을까?”

진우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빙긋 웃었다.

“그래, 좋아!”

아이들은 너도나도 용돈을 꺼내어 호떡 아저씨에게로 달려  
갔다.



“꼬마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맛있는 호떡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재미난 목소리로 아이들을 맞았  
다. 비록 키가 작고 마르긴 했지  
만 아저씨의 웃는 얼굴은 보름달  
처럼 크고 환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저  
렇게 즐거운 걸까?’

단비는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데 힘들게 번 돈을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보낸다는 아저씨가 그저 놀라워 보였다.

그날 밤, 단비는 일을 마치고 온 엄마 아빠에게 호떡 장수 아저씨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 나도 텔레비전에서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우리 큰 가게를 하면서도 고작 그날 팔고 남은 빵을 사랑의 푸드 बैं크를 통해 보내는 것뿐인데.”

“엄마, 푸드 बैं크가 뭐예요?”

단비는 놀라 물었다.

“응, 누군가가 음식물이나 물품들을 결식아동이나 소년 소녀 가정,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면 그걸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단체이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하시는 줄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단비는 엄마 아빠가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이 마냥 기뻐했다.

“하하, 단비야. 엄마 아빠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기부할 생각이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평생 옷감을 팔아서 모은 돈 십억 원을 대학교에 기부했다고 하더구나. 그뿐이



아니란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 학교 문턱  
에도 못 가 본 게 한이 되어 고생고생  
하며 모은 돈을 몽땅 가난한 아이들  
을 위해 쓰라며 내놓기도 하였  
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남을 위  
해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일이 늘어나는 걸 보니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나

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빠가 옆에서 설명해 주었다.

단비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순간 위인전에서 읽은 빌 게이츠  
와 워런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2008년 일을 그만둔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  
는 인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 게이  
츠의 이름을 따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우고 전 세계  
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수없이 많이 한대요. 세계



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도 직접 자선재단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의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어요.”



단비는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말했다.

“이런, 우리 단비도 두 사람에 관해 많이 알고 있구나. 그렇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나 가족보다 남을 위해 재산을 기부한 훌륭한 사람들이지.”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엄마는 생각난다는 듯 말했다.

“맞다. 재산이 무려 일천억 달러에 이르는 빌 게이츠는 자기의 세 자녀에게 일천만 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잖니. 자기 전 재산의 천분의 일만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하니, 정말 아무나 하기 힘든 결정이지.”

“그뿐인 줄 알아? 워런 버핏은 해마다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자선 경매를 통



해 기금을 모은다는군. 사람들은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과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그의 투자 경험을 듣는 거지. 지난 십일 년 동안 그렇게 모아진 기금이 무려 구백만 달러에 달한대. 물론 그 돈은 좋은 일에 쓰이고 있고.”

“아빠, 그러니까 꼭 자기가 직접 돈을 기부하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빠의 말을 듣던 단비가 새로운 걸 발견한 듯 놀라 물었다.

“그럼,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재능 기부도 있다. 피아니스트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일, 축구 선수가 축구를 가르쳐 주는 일도 재능 기부이다. 아빠나 엄마처럼 음식을 기부할 수도 있고, 안 쓰는 피아노나 컴퓨터 같은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어 주는 일도 할 수 있고. 기부란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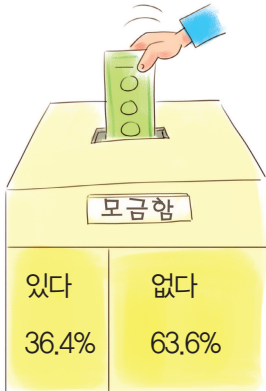
“아, 그렇구나.”

단비는 아빠의 말을 듣고 보니 기부가 꼭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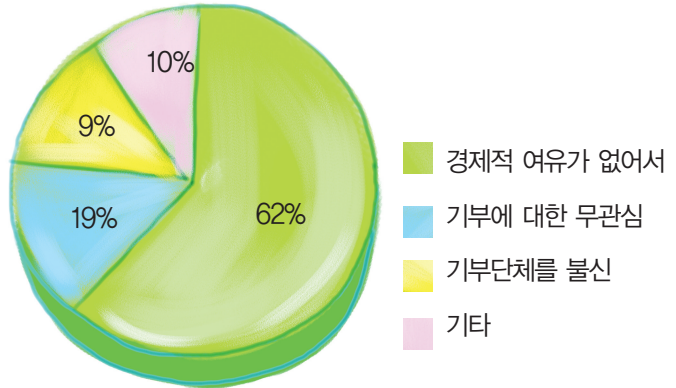
## 나눔 문화 : 기부한 경험, 2010년

조사 대상 : 13세 이상 인구

### 1.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 2. 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 통계청

‘기부한 사람과 기부하지 않은 사람의 수치가 반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비는 기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 기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고,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았다.

“호떡 장수 아저씨는 펀돈을 모아 기부하시는데 ……”

단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단비는 아이들과 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었다.

“얘들아, 우리도 호떡 장수 아저씨처럼 푼돈을 모아 누군가를  
도우면 좋을 텐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니? 나 혼자 쓰기도 용돈이 모자라는데.”  
동수가 대뜸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 꼭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 곰곰 생각  
해 보면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였다.

“얘들아, 우리끼리 벼룩시장을 열면 어떨까? 집에서 안 쓰는 학  
용품이나 다 읽은 책, 장난감 따위를 가지고 와서 파는 거야.  
그걸 판 돈을 모아 고아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양로원  
에 기부하면 되잖아.”

반장 수정이가 아이들을 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우와! 역시 반장은 다르다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어 댔다.

“좋아. 내가 당장 선생님한테 여쭙 볼게.”



수정이는 몸을 돌려 교무실 쪽으로 조르르 달려갔다.

“선생님, 저희끼리 베품시장을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죠?  
물건을 판 돈을 좋은 일에 기부하려고요!”

수정이는 들뜬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여쭙었다.

“어머나! 너희가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지? 그렇잖아도 날  
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너희 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5학년 전체가 다 함께 하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  
을까? 선생님이 방과 후에 5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해보  
마.”

선생님은 기뻐하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반장 수정이는 교실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야아! 신난다, 신나.”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마침내 5학년 5반 아이들이 낸 제안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거쳐 그야말로 순식간에 5학년 전체로 퍼져나갔다. 각 반의 반장들이 몇 번이나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 금요일 오후에 벼룩시장을 열기로 하였다.

학교 게시판에 벼룩시장 연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아이들은 너도나도 들뜬 마음으로 벼룩시장에 내놓을 물건들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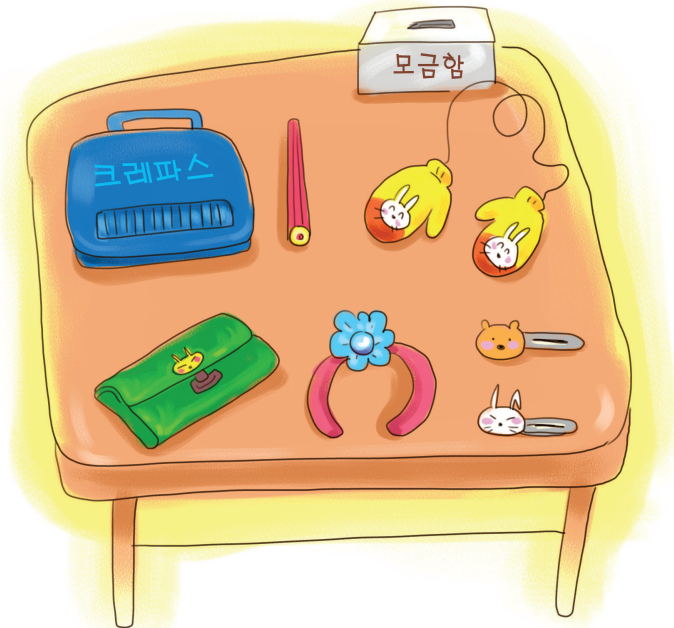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은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복도에 죽 늘어놓고 진열대로 썼다. 5학년 학생들은 반별로 그리고 분단별로 자기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진열대에 놓았다. 복도는 시장터로 변하였다. 어떤 아이들은 가게 이름도 내걸고, 어떤 아이들은 벽을 치장하고, 마치 장날의 장터 같았다.

단비는 새 크레파스랑 연필, 털장갑, 손지갑, 반짝이가 달린 헤어밴드, 핀 등을 내놓았다. 아이들이 저마다 책은 물론 그림이 든 액자, 인형, 게임기, 장난감, 옷 등을 내놓았다.

벼룩시장에서 제일 화려한 곳은 '보라공주' 인 헤리가 속한 3분단이였다. 헤리는 기획사 소속 아이돌 가수들에게 얻은 브로마이드 사진이며, 음반, 장신구, 운동화 따위를 싼값에 내놓았다. 그래서 손님이 가장 많이 몰렸다.

“야아! 멋지다, 멋져.”

“빨리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지!”



아이들은 길게 이어진 복도를 따라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손님들 중에는 5학년 뿐 아니라 다른 학년 아이들까지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 물건을 파는 아이들도 사는 아이들도 들뜬 표정이었다.

“어서 오세요! 이 게임기 진짜 새 거예요. 단돈 천 원이요!”

“정말요?”

“에이, 너무 비싸다. 값을 좀 깎아 줘, 응?”

어떤 아이는 일부러 투정을 부리며 값을 깎기도 하였다.

벼룩시장이 끝났다. 반장들이 모여서 판매한 금액을 계산하고 있었다.

“수정아, 각 반마다 얼마나 팔았는지 그 자료 좀 가져와.”

단비는 수정이에게 귓속말을 하였다.

“그건 왜?”

수정이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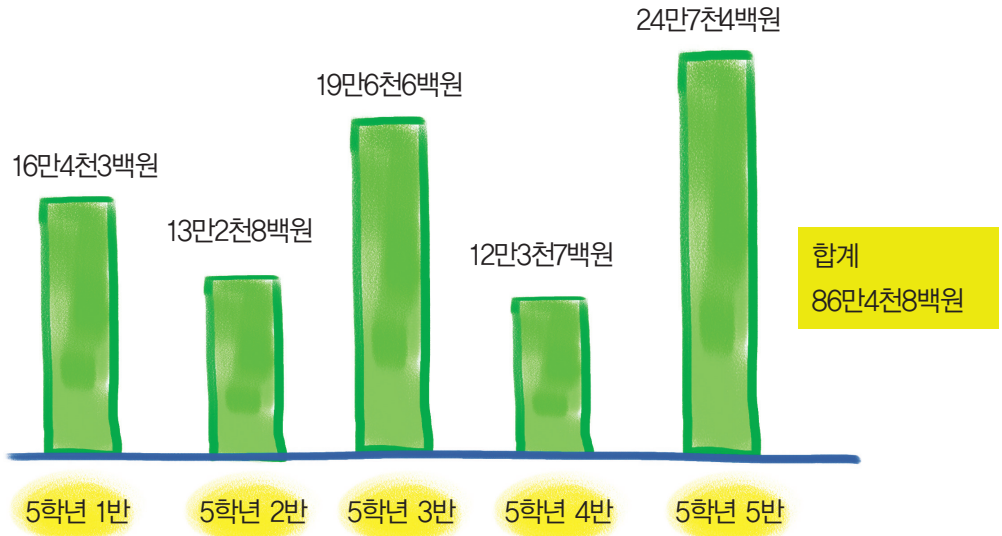
“아휴, 우리가 누구니? 통계 특공대잖아.”

“호호, 알았어!”

수정이는 그제야 말귀를 알아듣고 환하게 웃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5학년 전체 5개 반의 벼룩시장 수익금을 알아보자



한참 후, 교실에서 기다리던 단비와 형우, 한솔이는 수정이가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각 반마다 판매한 금액을 그림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통계 특공대는 잠깐 사이에 막대그래프를 완성하였다. 이제 이런 정도의 그래프는 식은 죽 먹기였다.

“애들아, 이것 좀 봐. 와아!”

통계 특공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벼룩시장을 열자고 안건을 처음 낸 반답게, 5학년 5반의 판매 금액이 다섯 반 중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 특공대가 다음 날 반 친구들에게 막대그래프를 보여 주자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다.

“역시 우리 반이 최고야!”

“우리가 모은 돈이 저렇게 많다니!”

“집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을 팔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되다니.  
신기하고 뿌듯해.”

어떤 아이는 꺽충꺽충 뛰며 소리를 질렀다. 반 아이들은 함박웃  
음을 지었다.

“우리 반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건 혜리 덕이야. 혜리가 아이돌  
가수들의 음반이랑 브로마이드, 사인지, 장신구 같은 걸 아이  
들한테 많이 팔았거든.”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니까 언니 오빠들이  
기꺼이 도와 준 거야.”

혜리는 방실방실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네 덕분이야. 고마워!”

아이들은 혜리를 보며 검지와 중지로 브이 자를 그려보였다.

회의를 마치고 교실로 온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린 그래프를 보



고 한참 병긱병긱 웃었다.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룬다더니. 너희의 작은 힘이 모여 큰 강을 이루었구나. 정말 너희가 자랑스럽다. 이 돈을 어디에 보내야 할지 학년 회의에서 의논해 보아라. 이제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기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모두 수고했다!”

선생님은 반 친구들을 향해 손뼉을 쳤다. 반 친구들은 일어서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선생님에게 손뼉을 쳤다.

‘그래, 선생님 말씀처럼 기부는 어려운 게 아니야. 나도 이제부  
터 남을 돕는 일에 앞장 설 테야!’  
단비는 주먹을 꼭 쥐고 중얼거렸다.

##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뒤편?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단비는 미라가 한 달에 용돈을 1만 원이나 받는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뭘 그렇게 놀라니. 우리 반에 2만원 받는 아이들도 수두룩한데.”

미라는 별 거 아니라는 듯 말했다. 단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왠지 약이 올랐다.

‘아휴! 왕소금 여사. 짠순이 올 엄마!’

한 달에 겨우 5천 원을 주면서 만날 아껴 쓰라고 잔소리해 대는 엄마가 갑자기 미워졌다. 5천 원, 친구들이랑 분식집 몇 번 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금방 바닥이 났다. 그나마 어찌다 친척들이 와서 주고 가는 용돈이 없었으면 아이들이랑 군것질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5학년이나 됐는데 5천 원이 뭐야. 적어도 만 원은 받아야지.’

단비는 생각할수록 그동안 무언가 손해를 본 기분이었다.

그 날 밤, 단비는 엄마 아빠 눈치를 살살 살피다가 기회는 요때 다 싶어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이번 달부터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갔다.

“뭐어?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입혀 주고 다 하는데 오천 원이면 뒤집어쓰고도 남지!”

“말도 안 돼, 엄마.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만 원씩 받는 아이들도 많다고요. 이만 원, 삼만 원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단비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당차게 밀고 나갔다.

“아니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니? 아무튼 남의 집 아이들이야 얼마를 받든 나는 더 이상 올려 줄

수 없어.”

엄마도 어림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엄마, 5학년 되니까 용돈 쓸 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제 발 오천 원만 더 올려 주세요, 네?”

단비는 작전을 바꿔서 사정했다.

“뭘어? 백 퍼센트를 인상해 달라고? 한 달에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라.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게다가 학습지에다 참고서 동화책도 사 줘야지. 그뿐이냐? 옷 사 주라, 신발 사 주라. 허리가 뒤틀리니까. 자식이 하나이기 에 망정이지 둘이나 셋이었으면 우리 집 기둥뿌리 다 뽑혔을 거다.”

엄마는 마침 잘 만났다는 듯 주저리주저리 단비한테 들어가는 돈을 늘어놓았다.

옆에 있던 아빠가 맞장구를 쳤다.



“허허, 여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우리가 빵을 몇 개나 더 팔아야 하는지 알아? 당신은 커피를 몇 잔이나 더 팔아야 하고?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는 데에 드는 돈이 아이 하나에 이억 원이 넘는다는군.”

“네에? 저 하나 키우는 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요?”

단비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백만 원, 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의 돈이 든다니 말이다.

“단비야,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아빠가 신문 기사를 오려서 고이 모아 두었다. 자, 우리 통계 대장님. 읽어 보시지요!”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며 서랍에서 신문기사 하나를 꺼내었다. 단비는 눈을 똑바로 뜨고 기사를 읽었다.

“우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요?”

단비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무리 손으로 꼽아 봐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

“허허, 단비야. 그 아래도 좀 읽어 보렴. 월평균 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알았어요.”



# 학부모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평균비용, 2010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비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단비는 아빠의 말대로 그 아래 기사를 읽기 시작하였다.

“단비야, 그걸 보고도 용돈을 백 퍼센트 올려 달라고 할 테냐?”

엄마는 싱긋이 웃으며 물었다. 단비는 더 이상 용돈 타령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한 달에 5천 원은 너무 적었다.

‘왕소금, 짠순이 여사. 우리 엄마를 어떻게 설득하지.’

단비는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엄마. 그럼, 제가 용돈을 벌어서 쓰는 건 괜찮죠?”

“뭐어, 네가 어디서 돈을 벌어? 너 같은 꼬맹이를 누가 써 준다  
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 물었다.

“호호! 엄마 아빠가 써 주면 되지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오백 원, 빨래 개기 삼백 원, 청소하기 오백 원, 아빠 엄마 구두 닦기 삼백 원, 심부름 이백 원, …… . 이렇게 말이에요.”

단비는 엄마 아빠와 흥정하였다.

“호호호. 그렇잖아도 가게 일 보라, 집안 일하라, 날마다 동동걸음을 치는데. 그런 일이면 엄마가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 뭐.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엄마는 활짝 웃으며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럼,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 일이지. 우리도 단비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럼 이제 용돈 협상은 끝난 거다. 됐니?”

“네!”

단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비록 용돈을 올려 받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꼽아 보니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버는 돈도 쓸쓸할 테니까.

단비는 엄마 아빠 심부름에다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받은 돈을 돼지 저금통에 모았다. 그렇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은 정말 하기 싫었다. 음식물 수거통 뚜껑을 열면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으로 코를 틀어막아도 견디기 어려웠다.

‘아휴, 내가 이런 고생까지 하면서 용돈을 벌어야 하나.’

단비는 그럴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다른 아이들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척척 받는다는데.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단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유정이 저쪽에서 걸어왔다. 유정이는 반에서 자주 참새처럼 재잘재잘 떠들었다.

‘으악, 하필 여기서 유정이를 만날 게 뭐람. 어떡하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든 단비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유정이가 아는 체하였다.

“어, 단비야. 어디 가니? 어머, 그 손에 든 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그, 그래.”

단비는 우물쭈물 대답했다.

“어머, 너희 엄마 계모니? 냄새 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린 너한테 버리게 하시다니!”

유정이는 딱하다는 듯 단비를 아래위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단비는 발끈 화가 났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야.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용돈을 받기로 했거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셔. 나도 스스로 돈을 버니까 떳떳하고!”

단비는 부끄러워했던 마음을 버리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정이 보라는 듯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그래, 이걸 엄마 아빠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일이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꼭 참아야 해.’

단비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니!’

단비는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다가 깜짝 놀랐다. 묵직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틀림없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동전으로 어느 새 돼지 저금통이 묵직해져 있으니.



“우헤헤, 김단비. 이러다 부자 되겠다!”

단비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돈이 생기면 문방구나 팬시점에 가서 이것저것 마구 샀는데.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다. 단비는 고개를 가우똥하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내가 힘들 게 번 돈이라 더 귀하게 여기는 걸까? 옳지, 은행에 저금하면 되겠다!’

단비는 돼지 저금통을 안고 은행으로 달려가 저금하였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뿌듯하게 찼다.

‘그래, 나 하나 키우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든다잖아. 알뜰살뜰 모았다가 이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려야지.’





# 애들아, 마법풍선 불어볼까?

- 제1판 1쇄 인쇄 | 2012년 12월 17일
- 제1판 1쇄 발행 | 2012년 12월 20일
- 글 | 이규희
- 그림 | 김영곤
- 감수 | 한성각 · 이희숙
- 기획 | 정보서비스팀(오성영 · 마경필 · 김종철)
- 편집 디자인 및 진행 | 깊은술(02-396-1044)
- 퍼낸이 | 우기종
- 퍼낸곳 | 통계청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 전화 | 042-481-2420, 2417
- 팩스 | 042-481-2478
- 홈페이지 |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발간등록번호 | 11-1240000-000644-01

ISBN 978-89-5801-322-8 93310

값 9,000원

© 2012, 통계청

\*구입 신청은 통계쇼핑몰(<http://www.kostat.go.kr/shopmall>)이나  
한국통계진흥원(031-759-016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한 달 용돈 만 원으로 올려 주세요.”라고 무조건 조르면 엄마가 “그래.” 하고 들어 주실까요? 이 책의 주인공 단비처럼 통계를 보여 드리면, 엄마가 청을 들어 주실지도 모르지요. 통계로 상대의 마음을 움 직일 수도 있어요.

“헌 옷을 재활용하면 자원이 절약되나요?” 그럼요, 되고말고요. 이 책에 그런 통계가 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재활용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통계는 정확한 지식이지요.

마술사가 빈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꺼낸 것을 보셨나요? 통계는 마 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그러나 통계를 볼 줄 알면 마술사처럼 통계에 담긴 보물들을 꺼낼 수 있지요. 여러분도 통계에 담긴 보물들을 꺼내 보 셔요. 성적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숨은그림찾기. 무엇인지 아시지요? 통계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에 게 통계는 숨은 그림 또는 숫자나 수치 또는 표나 그래프에 지나지 않지 요. 그러나 통계는 별별 보물이 담겨 있는 보물 지도이지요. 통계에 담 긴 보물을 찾으려면 ‘통계를 보는 눈’을 떠야 하지요. “누가, 왜,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따위를 보는 눈이 ‘통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통계를 보는 눈’이 뜨일 거예요.



값 9,000원